생애금융보고서

100년 행복

금퇴족으로 사는 법

김혜령 100년 행복연구센터 연구위원
유근용 하나은행 AI빅데이터센터 차장
심우인 하나은행 AI빅데이터센터 대리

하나금융그룹 | 100년 행복연구센터

요약

"은퇴 후에도 오늘과 같은 생활수준을 위해
차곡차곡 금융자산을 마련해가는 사람들"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정의하는 금(金)퇴족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금융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하나은행 AI빅데이터센터와 함께 '19년 12월 현재 일정수준 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30~55세 남성을 대상으로 금퇴족을 찾아보았다. 60세부터 기대여명까지 현재 소비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연령대와 소득수준별로 그 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스를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분석 결과 드러난 금퇴족의 금융투자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노후자금 준비도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금퇴족 점수표**를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찾은 금퇴족의 특징 6가지

1. **은퇴에 가까운** 50~55세 금퇴족은 평균적으로 월 298만원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511만원으로 같은 연령대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월 69만원 많다. 이들은 298만원 소비지출 가운데 131만원 국민연금 예상액을 제외하고 월 167만원의 현금흐름을 보유자산에서 마련하게 된다.

2. **금퇴족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 2천만원으로 전체 평균(9천만원)보다 35% 많다. 30~34세 금퇴족 평균 6천만원부터 50~55세 금퇴족 3억 9천만원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규모는 커진다.

"금퇴족은 40대 이후부터 드러나며,
이들의 금융자산 중 펀드·연금·신탁의 비중이 60% 이상"

3. **금퇴족은 40대 이후부터 드러난다.** 40세 이후부터 보유 금융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1억원 이상 커진다. 30대 후반 그 차이가 5천만원인 것에 비해 격차가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금융상품 구성에서도 펀드·연금·신탁 등의 규모가 전체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연령대별로 전체 평균보다 7~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식비중은 40~44세, 펀드 규모는 45~49세에 절정이다.** 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비중을 살펴보면 40대가 1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으며 같은 연령대 평균 6%보다 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규모는 평균 5천 9백만원으로 45~49세일 때 절정이다. 50대의 펀드 잔액 역시 평균 5천 8백만원으로, 50대에도 펀드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동산(주택연금)이 있다면 금퇴족의 범위는 확대된다.** 60세 이후 부동산에서 월 65만원('19년 말 시가 3억 1천만원 주택연금 기준)을 확보하면 당장 50~55세 금퇴족의 필요 금융자산이 3억 9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40대 이상의 주식투자 비중도 전체적으로 하락한다.

6. **금퇴족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50~55세 금퇴족의 보유 금융자산은 소득수준에 따라 1억 5천만원(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10억 6천만원(소득 800만원 이상)까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예상액은 일정수준 이하에서 머물기 때문에 직접 마련해야 할 현금흐름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의 금퇴족 점수는 몇 점?"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금퇴족처럼 노후준비 하고자 할 때 나의 현재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금퇴족 점수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월 400만원 정도인 40~44세는 아래 ① **금융자산 보유점수와** ② **저축점수를 곱하여** 나의 금퇴족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① 금융자산 보유점수
(지금 얼마나 있나?)

소득의 5%만 저축하면 필요자금 달성 가능

소득의 15%를 저축해야 하는 수준

소득의 20%를 저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수준

금융자산 점수	40~44세
135점 ▶	1억 8천만원
115	1억 4천만원
100점 ▶	1억 원
85	8천만원
70점 ▶	6천만원

※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

×

② 저축 점수
(앞으로 얼마나 저축하나?)

점 수	소득대비 저축 (소득 월400만원 기준)
2.0	30% (120만원)
1.5	20% (80만원)
1.0	**15% (60만원)**
0.75	5% (20만원)
0.50	저축 안함
0.25	저축 안하며 퇴직연금도 없음

※ 퇴직(연)금이 없을 때는 한단계 아래 점수를 적용함

[예 시]

월 소득 400만원인 42세 김하나씨,
금융자산 8천만원이 있고
월 60만원씩 저축할 때
나의 금퇴족 점수는?

※ 김하나씨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임

85점 = 85점 × 1.0 점

85점: 8 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1.0 점: 소득대비 15% 저축 점수

100점 이상이면 '안정권'
70점 이상이면 '양호'

목차

I. 금(金)퇴족 소개 5

II. 금퇴족의 특징 6가지 9

III. '20년 나의 금퇴족 점수는? 17

1. 평균 소득자 (월 300~500만원 미만)
2. 중상위 소득자 (월 500~800만원 미만)
3. 상위 소득자 (월 800만원 이상)

IV. '19년 금퇴족의 금융자산 현황 34

Appendix 금퇴족 분석 방법 60

참고문헌 63

I. 금(金)퇴족 소개

1. 금(金)퇴족 이란?

‘은퇴 후에도 오늘같은 생활수준을 위해,
차곡차곡 금융자산을 준비해가는 사람들 ’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정의하는 금퇴족이다.

은퇴 이후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노후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최근 50~64세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만이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등, 사람들 중 상당수는 노후자금 부족을 호소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퇴직과 동시에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금퇴족들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현역시절 초기부터 연금을 활용하고 금융투자도 병행하며 생활비를 어느정도 충당할 만한 금융자산이 있었다.

100년 행복 연구센터는 노후를 뒷받침할 금융자산을 마련해가는 30~55세 금퇴족을 정의하고 추적하였다.

이들을 찾기 위해 ‘60세부터 남은 기대수명까지 현재 소비지출을 유지할만한 자금’을 충분한 노후자금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경제활동 시작부터 59세까지 그 자금을 마련해갈 때 이상적인 자금마련 궤도(trajectory) 안에 드는 사람들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금융상품을 보유하는지, 금융투자비중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았다. 더불어 금퇴족의 자산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연령대와 소득수준별로 노후자금 준비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점수표를 마련하였다.

2. 금퇴족을 찾아서

'사람마다 충분한 노후자금은 다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서 50~64세 퇴직자들이 답한 충분한 노후자금은 평균 6억 8백만원이었다. 하지만 개인들이 내놓은 개별적인 생각을 들여다보면 큰 폭의 차이가 드러난다. 노후자금 5천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억원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자금은 매우 다양하다.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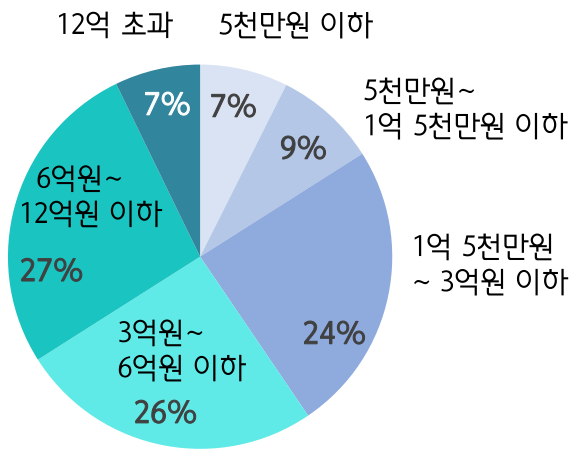
노후자금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 얼마나 쓸 것인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노후보장패널 부부 적정생활비 월 243만원이 대표적인 기준이지만, 이것이 나와 거리가 있다는 경우도 많다. 소득수준에 따라 그보다 덜 쓰는 사람, 반대로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운용중인 금융자산의 차이

소비지출이 같아도 예적금으로 운용할 때는 미리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일부 금융투자자산에 할애하여 돈을 굴리는 경우 예금만 있을 때보다는 저축액이 작아도 될 것이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50~64세 퇴직자들이 말하는 충분한 노후자금?

평균
6억 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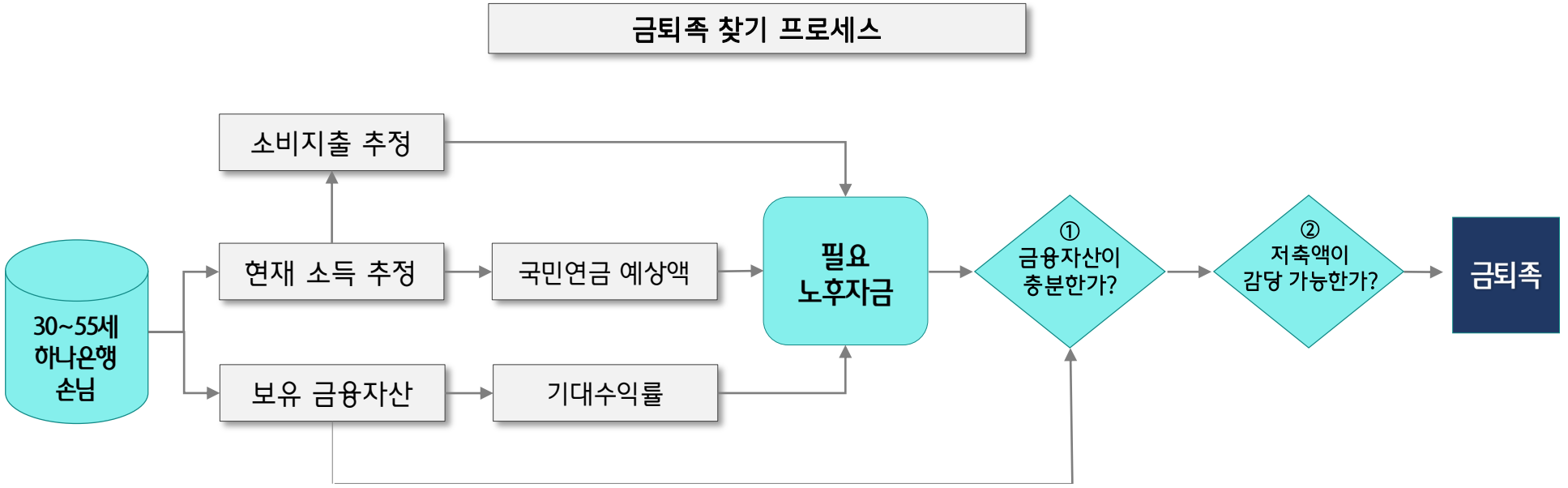


※ 50~64세 서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64세 직장 퇴직자 1,000명 대상
자료: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2019)

2. 금퇴족을 찾아서

'금퇴족의 실제사례를 찾아보자'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30~55세의 현재 소비지출과 금융자산 구성을 바탕으로, 필요 노후자금 규모와 앞으로의 저축액을 계산했다. 필요 노후자금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중간점검 할 때 **금융자산도 충분하고, 저축액도 부담할 만한 수준인 경우를 찾아내 금퇴족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 빅데이터 모형을 통해 개인별 소득과 소비지출을 추정하고, 금융자산 규모, 구성비, 금융투자비중을 집계하여 금퇴족의 실제 사례를 추출했다.



* 노후자금 계산 및 금융자산 준비도 평가방법은 Appendix 참조

II. 금퇴족의 특징 6가지

1. 은퇴 후 평균 월 298만원 생활비 확보
2. 보유 금융자산은 35% 더 많아
3. 금퇴족, 40대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
4. 주식비중은 40~44세, 펀드 규모는 45~49세에 절정
5. 부동산(주택연금)이 있다면 금퇴족 범위 확대된다
6.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금퇴족의 모습 달라져

금퇴족의 기준

▪ **금퇴족 기준은 ① 금융자산 점수 '70점~130점 이하' ② 저축부담 점수 '25% 이하'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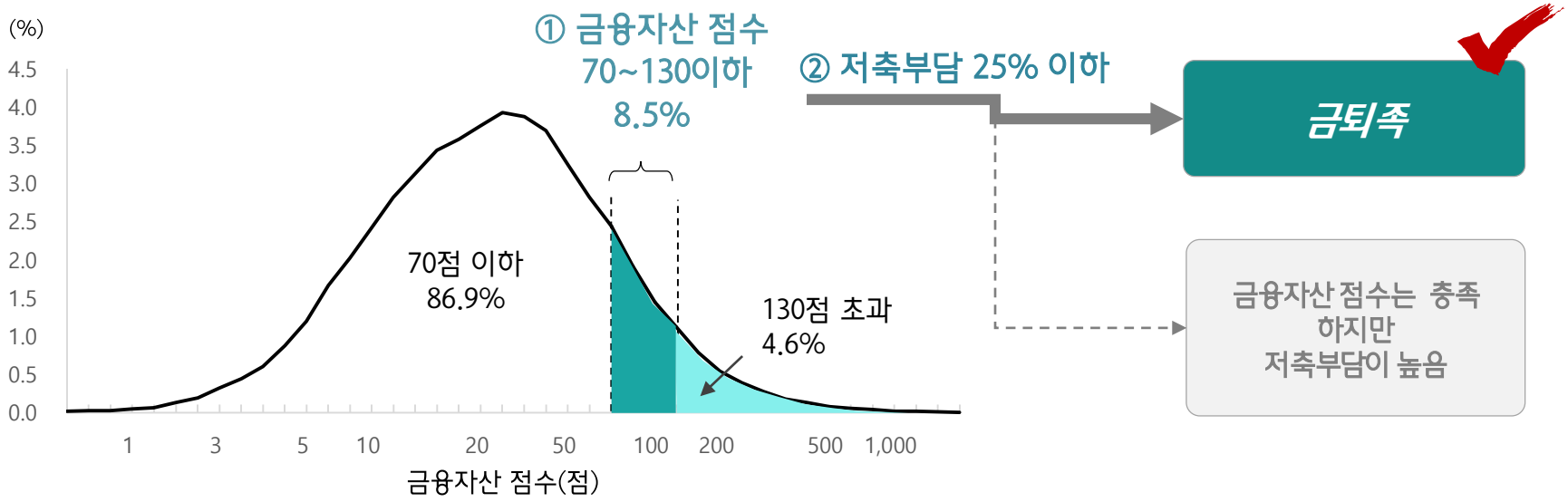
① 금융자산 점수 : 60세까지 노후 필요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간점검 할 때 현재 금융자산이 충분한가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모델 금융자산 대비 실제 보유자산의 크기가 같을 때 100점임

※ 모델 금융자산: 노후자금을 현역기간 동안 일정하게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까지 필요한 금융자산

130점 초과 제외: 노후준비에서 이미 여유가 충분한 집단이면서, 금융자산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제외시키기 위함

② 저축부담 점수 : 저축액이 개인에게 부담스러운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소득 대비 필요저축액의 비율로 나타냄

금융자산 점수 결과의 분포



* 전체 분석대상은 하나은행에 금융상품을 평균 1천만원 이상 보유중이며, 보험이나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중 1개 이상 가입한 30~55세 남성임

1. 은퇴 후 평균 월 298만원 생활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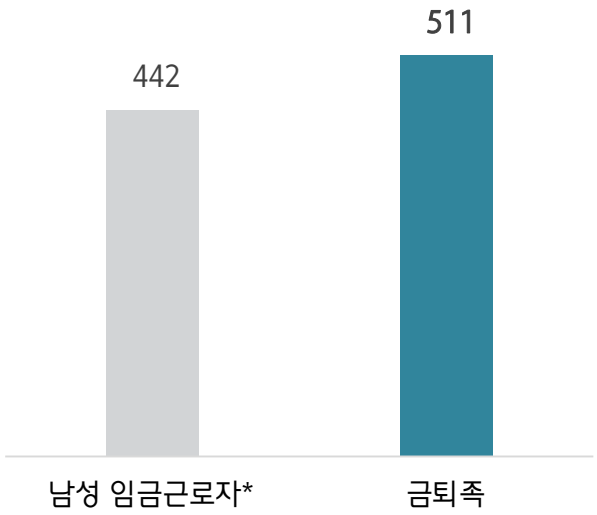
- **은퇴가 가까운 50~55세 금퇴족은 평균 소득이 월 51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연령대 임금근로자보다 월 69만원 많음**
- **50~55세 금퇴족이 현재 매월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지출은 월 298만원이며,**
  은퇴 후 월 298만원 소비지출을 유지하려면 예상되는 국민연금(131만원)을 제외하고 월 167만원을 충당한 사람들이 금퇴족임

※ **'소비지출'**은 가계지출에서 보험료 · 세금 · 공적연금 보험료 · 이자비용과 같은 지출을 제외한 소비수준을 추정함

50~55세 금퇴족이 마련해야 할 노후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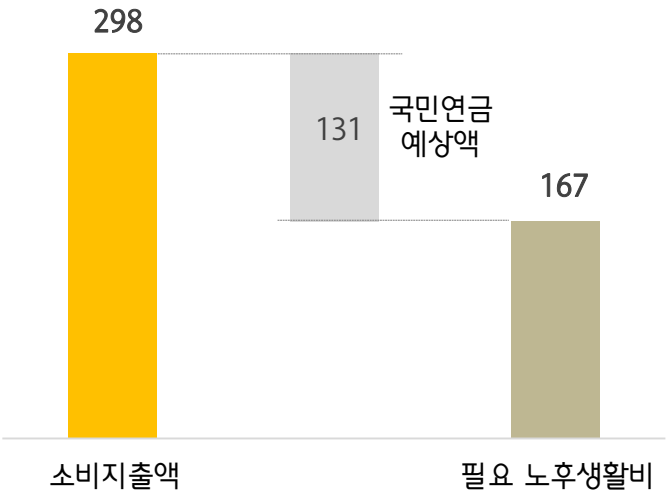
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원)



금퇴족의 필요 노후 생활비

(단위: 만원)



※ 남성 임금근로자 소득은 「2018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결과」, 통계청(2020.01.22)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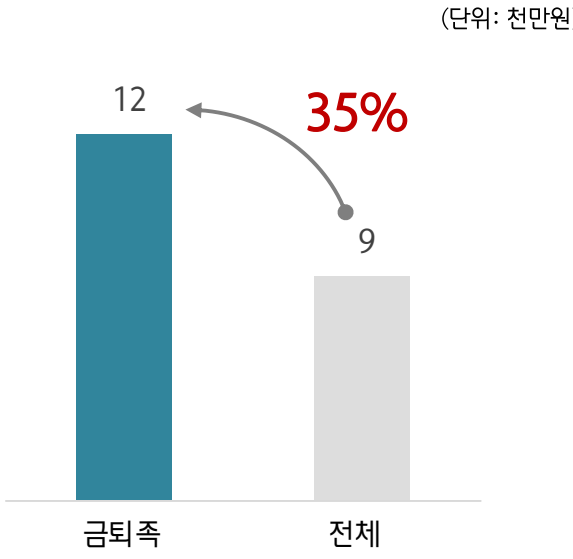
2. 보유 금융자산은 35% 더 많아

- **30~55세 금퇴족이 가진 금융자산은 평균 1억 2천만원으로, 전체 분석대상(9천만원)보다 3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은 '19년 12월 현재 퇴직연금 · 연금저축 · 보험 가운데 1가지 이상 가입 중이며, 금융상품을 평균 1천만원 이상 가진 30~55세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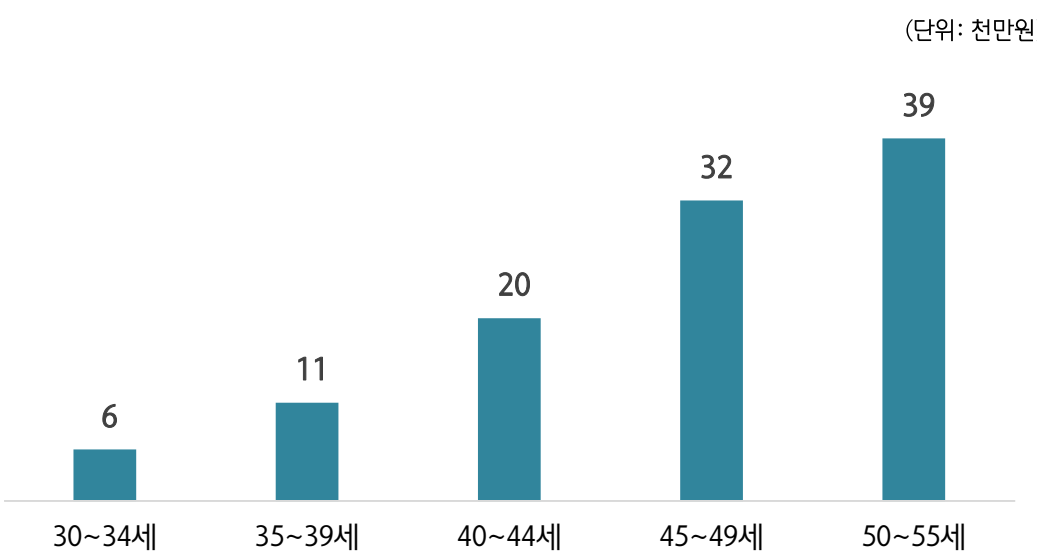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퇴족의 금융자산이 늘어나며, 50~55세 금퇴족의 평균 금융자산은 3억 9천만원으로 집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시작 후 저축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금퇴족이 되려면 더 많은 금융자산 있어야 하기 때문

금퇴족의 보유 금융자산

평균 보유 금융자산



연령대별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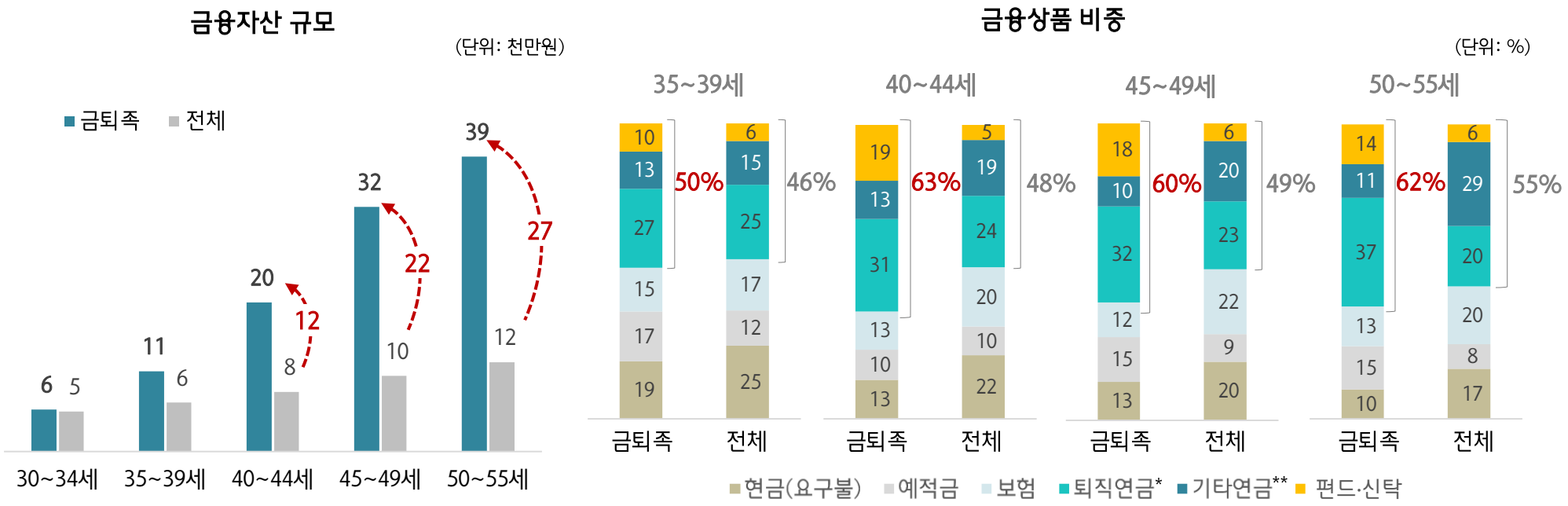
* 전체 분석 대상은 퇴직연금 · 연금저축 · 보험계약 중 1가지 이상 가입 중이며, 금융상품 보유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30~55세 남성

3. 금퇴족, 40세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

- **40세 이상 연령대부터 보유 금융자산과 금융상품 구성에서 금퇴족과 전체 사이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
  - 금융자산은 30~34세 금퇴족이 평균 6천만원, 35~39세는 1억 1천만원으로 전체보다 각각 1천만원, 5천만원 큰 것에 불과 40~44세 이상부터 금퇴족과 전체 분석대상 사이에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 격차가 나타남

- **금융상품 구성에서도 40~44세부터 펀드·연금·신탁 비중이 60% 이상으로, 전체보다 7%~15%p 높아짐**
  - 금퇴족은 펀드·신탁 상품의 비중이 높고, 연금제도 가운데에서는 DB형 · DC형과 같은 사업장 퇴직연금의 비중이 더 큼

연령대별 금융자산 및 금융상품 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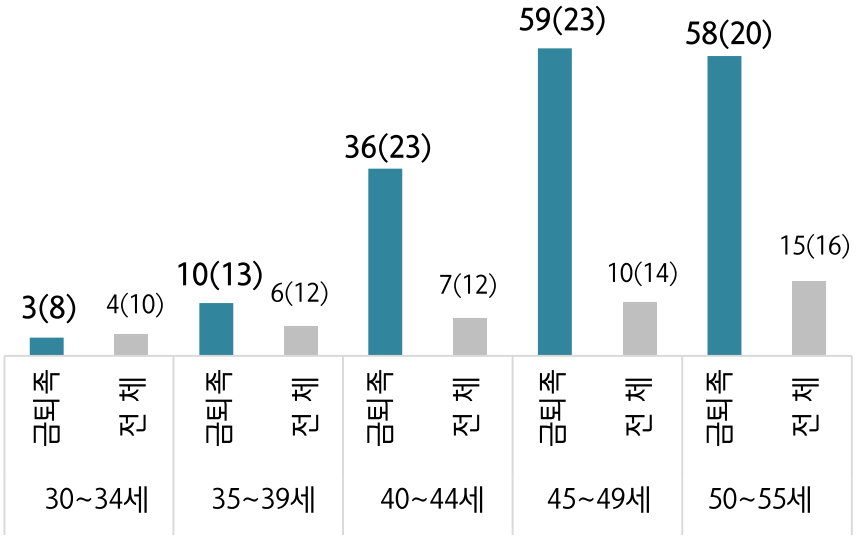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4. 주식비중은 40~44세, 펀드규모는 45~49세에 절정

- **금퇴족의 펀드투자는 40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45~49세에 절정을 이루고 50~55세 집단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45~49세가 5천9백만원을 펀드에 투자하여 가장 많으며, 이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금융자산(DB형 제외, 평균 2억 6천만원)중 23%를 차지
    ※ **'펀드투자'**란 일반펀드 뿐만 아니라 DC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에서 MMF,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로 운용되는 자산 잔액을 말함
- **펀드를 활용한 주식투자 비중은 40~44세 일 때 15%로 가장 높으며, 45~49세일 때 12%, 50~55세 8%로 점차 하락**
  - 30~34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금퇴족이 전체보다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펀드투자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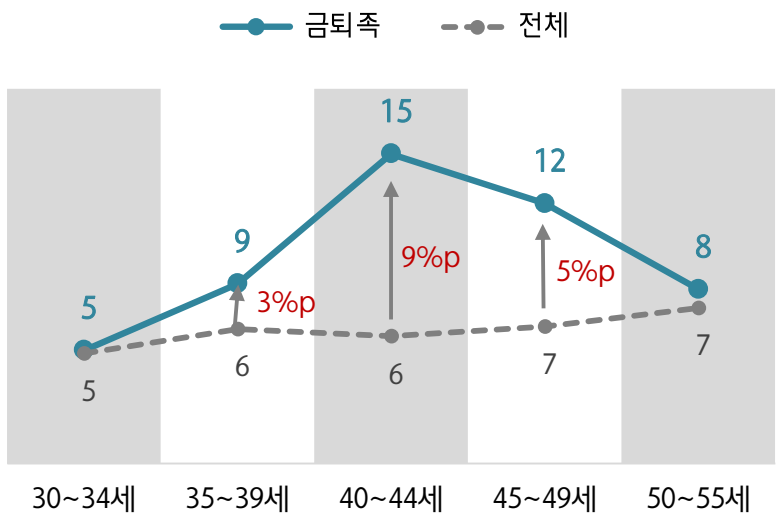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 DC형, IRP, 연금저축(펀드), 일반 리테일 펀드 등으로, MMF, 채권, 주식, 혼합형 펀드잔액임
괄호()는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직접 관리하는 자산 가운데 펀드 투자자산의 비중임 `

연령대별 주식투자 비중

(단위: %)



* 국내외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잔액을 바탕으로 주식투자비중 계산함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산 대비 주식의 비중임

5. 부동산(주택연금)이 있다면 금퇴족의 범위 확대 된다

▪ **부동산(주택연금)에서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면 금퇴족의 필요 금융자산이 작아지는 등, 금퇴족의 범위가 넓어짐**

- 60세 이후 부동산에서 월 65만원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50~55세의 필요 금융자산이 3억 9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1억 7천만원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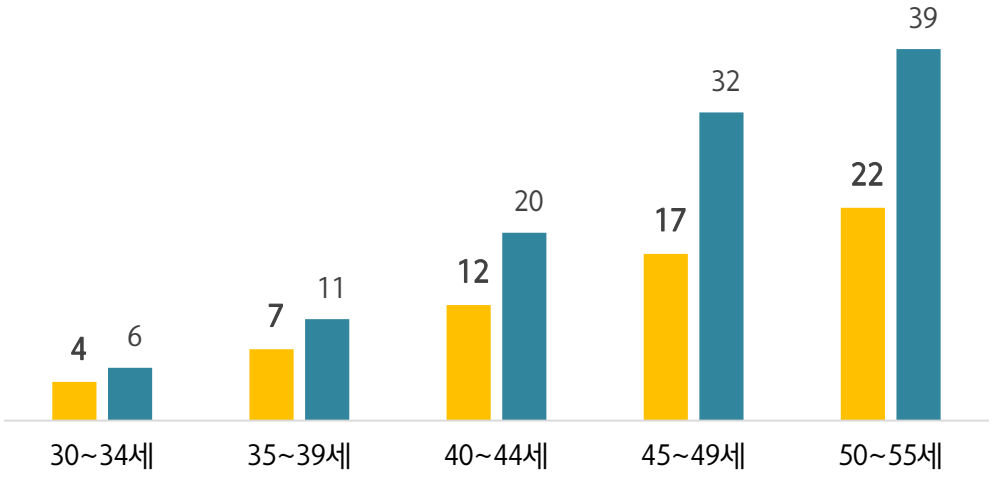
※ '19년 12월 현재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 3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60세에 주택연금 종신형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월 64만6천원 적용

▪ **금융투자 비중에서도 펀드를 활용한 주식투자가 전 연령대에 걸쳐 8%정도로 하락**

- 40~44세의 경우 주식비중이 기존 15%에서 부동산을 고려했을 때 8%로 가장 크게(7%p)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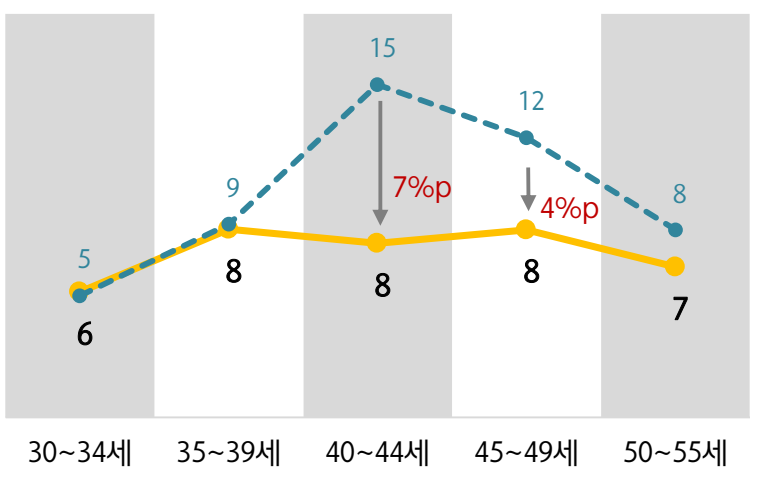
부동산 고려 여부별 금융자산 규모

(단위: 천만원)



부동산 고려 여부별 주식투자 비중

(단위: %)



* 국내외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잔액을 바탕으로 주식투자비중 계산함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산 대비 주식의 비중임

6.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금퇴족의 모습 달라져

▪ **50~55세 금퇴족의 평균 금융자산은 소득수준에 따라 1억 5천만원**(300만원 미만)**에서 10억 6천만원**(800만원 이상)**의 범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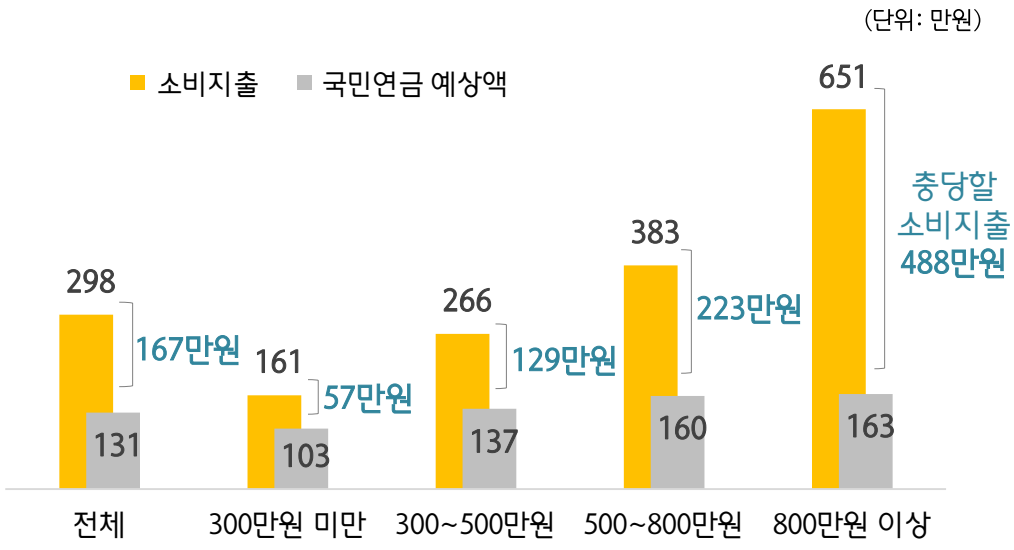
–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노후 소비지출은 651만원까지 증가하나 국민연금 예상액은 일정 수준 이하에서 머물기 때문

[소득수준 구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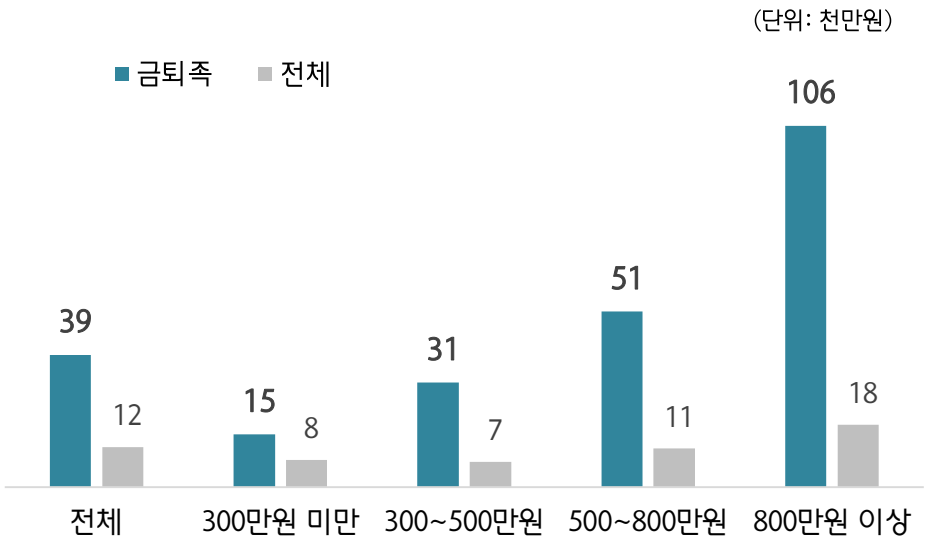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상위	800만원 이상	상위 4.5% 임금 이상 수준
중상위	500~800만원	대기업 평균임금(501만원) ~ 임금근로 상위 4.5% 수준
평균	300~500만원	평균임금(297만원) ~ 대기업 평균임금(501만원) 수준
중하위	300만원 미만	평균임금(297만원) 미만

※ 소득수준은'18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결과(통계청)의 자료를 참고

소득수준별 노후 소비지출



소득수준별 금융자산



III. ’20년 나의 금퇴족 점수는?

1.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 미만)
2. 중상위 소득자 (월 500~800만원 미만)
3. 상위 소득자 (월 800만원 이상)

’20년 나의 금퇴족 점수는?

‘금퇴족 따라잡기, 어떻게 할까?’

▪ **본 장에서는 금퇴족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나의 노후준비도를 중간점검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

① 본 분석에서 나타난 40대 이상 금퇴족의 평균 소득과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함

② 연령대별 금퇴족의 주식 · 채권 · 기타(부동산)자산과 금리형 상품 등의 평균 운용비중을 그대로 적용함

③ 2020년 기준 최신의 장기 기대수익률 전망을 바탕으로 함

④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주택연금)으로부터 현금흐름이 있을 때 평가표도 별도로 준비함

【 소득수준별 금퇴족 점수 알아보기 】

1. 평균 소득자 (월 300~500만원 미만) ---------- p.19

2. 중상위 소득자 (월 500~800만원 미만) ---------- p.24

3. 상위 소득자 (월 800만원 이상) ---------- p.29

1.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

1.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_1) 금퇴족의 모습은?

▪ **금퇴족은 꾸준한 저축과 금융자산 관리의 결과 현재** *① 금융자산이 충분히 적립되었고 ② 은퇴 전까지 일정하게 저축을 계속함*

금퇴족(100점) 기준은 40~44세일 때 현재 ① [금융자산] **1억원**이 있고 / ② [저축] **월 58만원**(소득대비 15%)을 실행

45~49세는 [금융자산] **2억 3천만원**, 50~55세는 [금융자산] **3억 1천만원** 보유

(예시) 40~44세 금퇴족 100점은…

현재 생활수준(월 278만원)**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예상액을 제한 부족 생활비(141만원)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60세까지 필요자금을 적립해야 함

그 과정에서 금퇴족 100점의 상황은 현재
1억원이 **있고,** 월 58만원(소득의 15%)**를 저축함**
이 때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매월 쌓이는 월 32만원까지 합하면 직·간접적으로 저축하는 돈은 총 월 90만원임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 채권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에 32%를 배분함

금퇴족 '100점'의 모습

(단위: 만원, %)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	40~44세	45~49세	50~55세
금(金)퇴족 평균소득	386	386	386
현재 생활수준(소비지출)	278	278	278
국민연금 예상액	137	137	141
부족 생활비	141	141	137
60세 시점 필요자금	40,000	43,000	42,000
(현재) 얼마 있어야 하나?	10,000	23,000	31,000
(앞으로) 월 얼마씩 저축? ①	58	58	58
소득대비(%)	15	15	15
퇴직연금 불입분 ②	32	32	32
총 저축액 (①+②)	90	90	90
금융투자자산 비중은?	32	16	10

1.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_2) 금퇴족 점수계산

▪ **금퇴족 기준(100점)을 바탕으로 한 '나의 금퇴족 점수'를 알아보려면 ① 금융자산 보유 점수와 ② 저축 점수를 곱하여 계산함**

-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100점 기준보다 작더라도 앞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하면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음

① 금융자산 보유점수
(지금 얼마나 있나?)

(단위: 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40~44세	45~49세	50~55세
135점 ▶	18	29	35
115	14	26	33
100점 ▶	10	23	31
85	8	22	30
70점 ▶	6	20	29
60	3	17	28
50점 ▶	-	14	26
40	-	8	22

※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

소득의 5%만 저축하면 필요자금 달성 가능함

소득의 15%를 저축해야 하는 수준

소득의 20%를 저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수준

소득의 30% 나 저축해야 할 상황!

×

② 저축 점수
(앞으로 얼마나 저축하나?)

점 수	소득대비 저축 (소득 월400만원 기준)
2.0	30% (120만원)
1.5	20% (80만원)
1.0	**15% (60만원)**
0.75	5% (20만원)
0.50	저축 안함
0.25	저축 안함 퇴직연금도 없음

※ 퇴직(연)금이 없을 때는 한단계 아래 점수를 적용함

[예 시]

월 소득 400만원인 42세 김하나씨,
금융자산 8천만원이 있고
월 60만원씩 저축할 때
금퇴족 점수는?

※ 퇴직(연)금 월 33만원(소득대비 8.3%)은 회사에서 따로 적립 중

85점 = 85점 × 1.0 점

85점: 8 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1.0 점: 소득대비 15% 저축 점수

100점 이상이면
생활수준 '안정권'
70점 이상이면 '양호'
※ 생활비 조정 필요할 수 있음

1.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_3) 부동산을 고려하면

▪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부동산을 활용하면 ① 보유 금융자산과 ② 저축할 금액도 작아지는 등 금퇴족(100점) 기준이 달라짐**

– 60세부터 부동산으로 월 65만원(3억 1천만원 주택연금 기준)을 평생 확보할 때를 기준으로 함

(예시) 40~44세 금퇴족 100점은…

현재 생활수준(월 278만원)**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137만원)**과 주택연금 예상액**(65만원) 을 제한
부족 생활비(76만원)를 마련해야 함

금퇴족 100점의 상황은 현재
5천만원이 **있고, 월 39만원(소득의 10%)를 저축함**
이 때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쌓이는 **월 32만원**까지
합하면 **'직·간접적으로 저축하는 돈'은 월 71만원임**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 **채권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에 32%를 배분함

부동산 활용 시 금퇴족 '100점'의 모습

(단위: 만원, %)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	40~44세	45~49세	50~55세
금(金)퇴족 평균소득	386	386	386
기준 월 소비지출	278	278	278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37	137	141
주택연금 예상액	65	65	65
부족 생활비	76	76	72
60세 시점 필요자금	28,000	30,000	28,000
(현재) 얼마 있어야 하나?	5,000	15,000	20,000
(앞으로) 월 얼마씩 저축? ①	39	39	39
소득대비	10	10	10
퇴직연금 불입분 ②	32	32	32
총 저축액 (①+②)	71	71	71
금융투자자산 비중은?	32	16	10

※ '19년 12월 현재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 3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60세에 주택연금 종신형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월 64만6천원 적용

1.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_4) 부동산 고려시 금퇴족 점수 계산

▪ **금퇴족 기준(100점)을 바탕으로 한 '나의 금퇴족 점수'를 알아보려면 ① 금융자산 보유 점수와 ② 저축 점수를 곱하여 계산함**

-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100점 기준보다 작더라도 앞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하면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음

① 금융자산 보유점수
(지금 얼마나 있나?)

(단위: 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40~44세	45~49세	50~55세
135점 ▶	13	21	24
115	9	18	22
100점 ▶	5	15	20
85	3	13	19
70점 ▶	1	12	18
60	-	9	17
50점 ▶	-	6	15
40	-	-	11

※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

직접 저축할 필요 없이 **퇴직연금만 잘 쌓으면** 되는 수준

소득의 **10%**를 저축해야 하는 수준

소득의 **15%**를 저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수준

소득의 **25%** 나 저축해야 할 상황!

×

② 저축 점수
(앞으로 얼마나 저축하나?)

점 수	소득대비 저축 (소득 월400만원 기준)
2.0	25% (100만원)
1.5	15% (60만원)
1.0	**10% (40만원)**
0.75	저축 안함
0.50	저축안함 (퇴직연금 없음)

※ 퇴직(연)금이 없을 때는 한단계 아래 점수를 적용함

[예 시]
월 소득 400만원인 42세 하나은씨,
금융자산이 3천만원 있고
월 40만원씩 저축할 때
금퇴족 점수는?
※퇴직(연)금이 없는 상황임

64점 = 85점 × 0.75점
- 85점: 3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 0.75점: 소득대비 10%를 저축하지만 퇴직연금이 없으므로 0.75점을 적용

월 저축액을 60만원
(소득대비 15%)으로 늘리면
85점의 '양호' 수준이 됨

2. 중상위 소득자(월 500~800만원)

2. 중상위 소득자(월 500~800만원)_1) 금퇴족의 모습은?

▪ **금퇴족은 꾸준한 저축과 금융자산 관리의 결과 현재** *① 금융자산이 충분히 적립되었고 ② 은퇴 전까지 일정하게 저축을 계속함*

금퇴족(100점) 기준은 40~44세일 때 현재 ① [금융자산] **2억 3천만원**이 있고 / ② [저축] **월 95만원**(소득대비 15%)을 실행

45~49세는 [금융자산] **3억 9천만원**, 50~55세는 [금융자산] **5억 1천만원**을 보유함

(예시) 40~44세 금퇴족 100점은…

현재 생활수준(월 403만원)**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예상액을 제한 부족 생활비(238만원)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60세까지 필요자금을 적립해야 함

그 과정에서 금퇴족 100점의 상황은 현재
2억 3천만원이 **있고,** 월 95만원(소득의 15%)**을 저축함**
이 때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쌓이는 월 53만원까지 합치면 '직·간접적으로 저축하는 돈'은 월 149만원임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 채권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에 17%를 할애

금퇴족 '100점'의 모습

(단위: 만원, %)

중상위 소득(월 500~800만원)	40~44세	45~49세	50~55세
금(金)퇴족 평균소득	638	638	638
현재 생활수준(소비지출)	403	403	403
국민연금 예상액	165	166	166
부족 생활비	238	237	237
60세 시점 필요자금	68,000	69,000	69,000
(현재) 얼마 있어야 하나?	23,000	39,000	51,000
(앞으로) 월 얼마씩 저축? ①	95	95	95
소득대비(%)	15	15	15
퇴직연금 불입분 ②	53	53	53
총 저축액 (①+②)	149	149	149
금융투자자산 비중은?	17	12	9

2. 중상위 소득자(월 500~800만원)_2) 금퇴족 점수계산

▪ **금퇴족 기준(100점)을 바탕으로 한 '나의 금퇴족 점수'를 알아보려면 ① 금융자산 보유 점수와 ② 저축 점수를 곱하여 계산함**

-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100점 기준보다 작더라도 앞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하면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음
-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한단계 아래의 저축점수를 활용하여 금퇴족 점수를 계산함

① 금융자산 보유점수
(지금 얼마나 있나?)

(단위: 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40~44세	45~49세	50~55세
135점 ▶	37	49	58
115	30	44	54
100점 ▶	23	39	51
85	19	36	50
70점 ▶	16	34	49
60	9	29	46
50점 ▶	2	24	43
40	-	19	40

※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

소득의 5%만 저축하면 필요자금 달성 가능함

소득의 15%를 저축해야 하는 수준

소득의 20%를 저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수준

소득의 30% 나 저축해야 할 상황!

×

② 저축 점수
(앞으로 얼마나 저축하나?)

점 수	소득대비 저축 (소득 월650만원 기준)
2.0	30% (195만원)
1.5	20% (130만원)
1.0	**15% (98만원)**
0.75	5% (33만원)
0.50	저축 안함
0.25	저축 안함 (퇴직연금 없음)

※ 퇴직(연)금이 없을 때는 한단계 아래 점수를 적용함

[예 시]

월 소득 650만원인 47세 나은행씨,
금융자산이 3억 4천만원 있고
월 98만원씩 저축할 때
금퇴족 점수는?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70점 = 70점 × 1점
3억 4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 소득대비 15% 저축 점수

100점 이상이면
생활수준 '안정권'
70점 이상이면 '양호'
※ 생활비 조정 필요할 수 있음

2. 중상위 소득자(월 500~800만원)_3) 부동산을 고려하면

▪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부동산을 활용하면 ① 보유 금융자산과 ② 저축할 금액도 작아지는 등 금퇴족(100점) 기준이 달라짐**

- 60세부터 부동산으로 월 138만원(6억 6천만원 주택연금 기준)을 평생 확보할 때를 기준으로 함

(예시) 40~44세 금퇴족 100점은…

현재 생활수준(월 403만원)**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165만원)**과 주택연금 예상액**(138만원) 을 제한
부족 생활비(100만원)를 마련해야 함

금퇴족 100점의 상황은 현재
7천만원이 있고, 월 64만원(소득의 10%)**을 저축함**
이 때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쌓이는 **월 53만원**까지
합하면 **총 저축액은 월 117만원임**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 **채권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에 17%를 할애

부동산 활용 시 금퇴족 '100점'의 모습

(단위: 만원, %)

중상위 소득(월 500~800만원)	40~44세	45~49세	50~55세
금(金)퇴족 평균소득	638	638	638
기준 월 소비지출	403	403	40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65	166	166
주택연금 예상액	138	138	138
부족 생활비	100	99	99
60세 시점 필요자금	40,000	40,000	40,000
(현재) 얼마 있어야 하나?	7,000	18,000	27,000
(앞으로) 월 얼마씩 저축? ①	64	64	64
소득대비	10	10	10
퇴직연금 불입분 ②	53	53	53
총 저축액 (①+②)	117	117	117
금융투자자산 비중은?	17	12	9

※ '19년 12월 현재 서울 평균 주택매매가격 6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60세에 주택연금 종신형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월 138만원 적용

2. 중상위 소득자(월 500~800만원)_4) 부동산 고려시 금퇴족 점수 계산

▪ **금퇴족 기준(100점)을 바탕으로 한 '나의 금퇴족 점수'를 알아보려면 ① 금융자산 보유 점수와 ② 저축 점수를 곱하여 계산함**

-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100점 기준보다 작더라도 앞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하면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음
-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한단계 아래의 저축점수를 활용하여 금퇴족 점수를 계산함

① 금융자산 보유점수
(지금 얼마나 있나?)

(단위: 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40~44세	45~49세	50~55세
135점 ▶	21	28	33
115	14	23	30
100점 ▶	7	18	27
85	3	16	26
70점 ▶	-	13	24
60	-	8	21
50점 ▶	-	3	18
40	-	-	15

※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

직접 저축할 필요 없이 **퇴직연금만 잘 쌓으면** 되는 수준

소득의 **10%**를 저축해야 하는 수준

소득의 **15%**를 저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수준

소득의 **25%** 나 저축해야 할 상황!

×

② 저축 점수
(앞으로 얼마나 저축하나?)

점 수	소득대비 저축 (소득 월650만원 기준)
2.0	25% (163만원)
1.5	15% (98만원)
1.0	10% (65만원)
0.75	저축 안함
0.50	저축 안함 (퇴직연금 없음)

※ 퇴직(연)금이 없을 때는 한단계 아래 점수를 적용함

[예 시]
월 소득 650만원인 47세 나은행씨,
금융자산이 1억 8천만원 있고
월 65만원씩 저축할 때
금퇴족 점수는?
※ 퇴직연금은 없음

75점 = 100점 × 0.75 점

100점: 1억 8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0.75 점: 소득대비 10% 이지만 퇴직연금이 없으므로 0.75점 적용

월 저축액을 65만원에서
98만원(소득대비 15%)으로 늘리면
100점으로 점수가 상향 된다

3. 상위 소득자(월 800만원 이상)

3. 상위 소득자(월 800만원 이상)_1) 금퇴족의 모습은?

- **금퇴족은 꾸준한 저축과 금융자산 관리의 결과 현재** *① 금융자산이 충분히 적립되었고 ② 은퇴 전까지 일정하게 저축을 계속함*

금퇴족(100점) 기준은 40~44세일 때 현재 ① [금융자산] **5억 5천만원**이 있고 / ② [저축] **월 150만원**(소득대비 10%)을 실행

45~49세는 [금융자산] **7억 6천만원**, 50~55세는 [금융자산] **10억 2천만원**이 있어야 함

(예시) 40~44세 금퇴족 100점은…

현재 생활수준(월 655만원)**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예상액을 제한 부족 생활비(489만원)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60세까지 필요자금을 적립해야 함

그 과정에서 금퇴족 100점의 상황은 현재
5억 5천만원이 **있고,** 월 150만원(소득의 10%)**를 저축함**
이 때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쌓이는 월 125만원까지 합하면
총 저축액은 월 275만원임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 채권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에 10%를 할애

금퇴족 '100점'의 모습

(단위: 만원, %)

상위 소득자 (월 800만원 이상)	40~44세	45~49세	50~55세
금(金)퇴족 평균소득	1,504	1,504	1,504
현재 생활수준(소비지출)	655	655	655
국민연금 예상액	166	168	167
부족 생활비	489	487	488
60세 시점 필요자금	134,000	132,000	134,000
(현재) 얼마 있어야 하나?	55,000	76,000	102,000
(앞으로) 월 얼마씩 저축? ①	150	150	150
소득대비(%)	10	10	10
퇴직연금 불입분 ②	125	125	125
총 저축액 (①+②)	275	275	275
금융투자자산 비중은?	10	12	8

3. 상위 소득자(월 800만원 이상)_2) 금퇴족 점수계산

▪ **금퇴족 기준(100점)을 바탕으로 한 '나의 금퇴족 점수'를 알아보려면 ① 금융자산 보유 점수와 ② 저축 점수를 곱하여 계산함**

-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100점 기준보다 작더라도 앞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하면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음
-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한단계 아래의 저축점수를 활용하여 금퇴족 점수를 계산함

① 금융자산 보유점수
(지금 얼마나 있나?)

(단위: 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40~44세	45~49세	50~55세
135점 ▶	73	87	109
115	64	82	106
100점 ▶	55	76	102
85	38	64	95
70점 ▶	21	52	88
60	11	40	81
50점 ▶	-	28	74
40	-	16	67

※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

소득의 5%만 저축하면 필요자금 달성 가능함

소득의 10%를 저축해야 하는 수준

소득의 20%를 저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수준

소득의 30% 나 저축해야 할 상황!

×

② 저축 점수
(앞으로 얼마나 저축하나?)

점 수	소득대비 저축 (월1400만원 기준)
2.0	30% (420만원)
1.5	20% (280만원)
1.0	10% (140만원)
0.75	5% (70만원)
0.50	저축 안함
0.25	저축 안함 (퇴직연금 없음)

※ 퇴직(연)금이 없을 때는 한단계 아래 점수를 적용함

[예 시]
월 소득 1400만원인 46세 김하나씨,
금융자산이 4억원 있고
월 280만원씩 저축할 때
금퇴족 점수는?
※ 퇴직연금 가입자임

90점 = 60점 × 1.5 점
60점: 4억원 금융자산 점수
1.5 점: 소득대비 20% 저축 점수

100점 이상이면
생활수준 '안정권'
70점 이상이면 '양호'
※ 생활비 조정 필요할 수 있음

3. 상위 소득자(월 800만원 이상)_3) 부동산을 고려하면

▪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부동산을 활용하면 ① 보유 금융자산과 ② 저축할 금액도 작아지는 등 금퇴족(100점) 기준이 달라짐**

- 60세부터 부동산으로 월 187만원(9억원 주택연금 기준)을 평생 확보할 때를 기준으로 함

(예시) 40~44세 금퇴족 100점은…

현재 생활수준(월 655만원)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166만원)과 주택연금 예상액(187만원) 을 제한
부족 생활비(302만원)를 마련해야 함

금퇴족 100점의 상황은 현재
3억 8천만원이 있고, 월 75만원(소득의 5%)를 저축함
이 때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쌓이는 월 125만원을 합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축하는 돈'은 월 200만원

보유 금융자산 중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 채권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에 10%를 할애

부동산 활용 시 금퇴족 '100점'의 모습

(단위: 만원, %)

상위 소득자 (월 800만원 이상)	40~44세	45~49세	50~55세
금(金)퇴족 평균소득	1,504	1,504	1,504
기준 월 소비지출	655	655	655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66	168	167
주택연금 예상액	187	187	187
부족 생활비	302	300	301
60세 시점 필요자금	95,000	93,000	94,000
(현재) 얼마 있어야 하나?	38,000	53,000	71,000
(앞으로) 월 얼마씩 저축? ①	75	75	75
소득대비	5	5	5
퇴직연금 불입분 ②	125	125	125
총 저축액 (①+②)	200	200	200
금융투자자산 비중은?	10	12	8

※ 주택연금 지급 한도인 주택가 9억원을 기준으로 종신형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월 187만원 적용

3. 상위 소득자(월 800만원 이상)_4) 부동산 고려시 금퇴족 점수 계산

▪ **금퇴족 기준(100점)을 바탕으로 한 '나의 금퇴족 점수'를 알아보려면 ① 금융자산 보유 점수와 ② 저축 점수를 곱하여 계산함**

-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100점 기준보다 작더라도 앞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하면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음
-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한단계 아래의 저축점수를 활용하여 금퇴족 점수를 계산함

① 금융자산 보유점수
(지금 얼마나 있나?)

(단위: 천만원)

금융자산 점수	40~44세	45~49세	50~55세
135점 ▶	55	65	78
115	46	59	75
100점 ▶	38	53	71
85	21	41	64
70점 ▶	3	29	57
60	-	17	50
50점 ▶	-	5	43
40	-	-	36

※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

직접 저축할 필요 없이 **퇴직연금만 잘 쌓으면** 되는 수준

소득의 **5%**를 저축해야 하는 수준

소득의 **15%**를 저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수준

소득의 **25%** 나 저축해야 할 상황!

×

② 저축 점수
(앞으로 얼마나 저축하나?)

점 수	소득대비 저축 (월1400만원 기준)
2.0	25% (350만원)
1.5	15% (210만원)
1.0	5% (70만원)
0.75	저축안함
0.50	저축 안함 (퇴직연금 없음)

※ 퇴직(연)금이 없을 때는 한단계씩 아래 점수를 적용함

[예 시]
월 소득 1400만원인 47세 김하나씨,
금융자산이 2억 9천만원 있고
월 70만원씩 저축한다면
금퇴족 점수는?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님

53점 = 70점 × 0.75 점
2억9천만원 금융자산점수 / 소득대비 5%이나 퇴직연금 미가입자 이므로 0.75점 적용

월 저축액을
210만원(소득대비 15%)으로 늘리면
금퇴족 점수가 70점으로 상향
'양호'한 수준이 됨

Ⅳ. ’19년 금퇴족의 금융자산 현황

1. 평균 소득자 (월 300~500만원 미만)
2. 중상위 소득자 (월 500~800만원 미만)
3. 상위 소득자 (월 800만원 이상)

’19년 금퇴족의 금융자산 현황

‘소득수준·연령대별 금퇴족의 금융자산 관리는?

- 앞선 3장에서 제안한 점수표는 ’19년 12월 현재 하나은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은 소득수준별 금퇴족의 평균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마련됨
- 본 장에서는 전체 분석 데이터 가운데,
  금퇴족의 집단별로 평균 소득, 소비지출 및 금융자산 등의 자세한 현황을 제시함

【 소득수준별 ’19년 금퇴족 현황 찾아보기 】

1. 평균 소득자 (월 300~500만원 미만) ---------- p.36
2. 중상위 소득자의 경우 (월 500~800만원 미만) ---------- p.44
3. 상위 소득자 (월 800만원 이상) ---------- p.52

1.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

1. 평균 소득자(월 300~500만원)_40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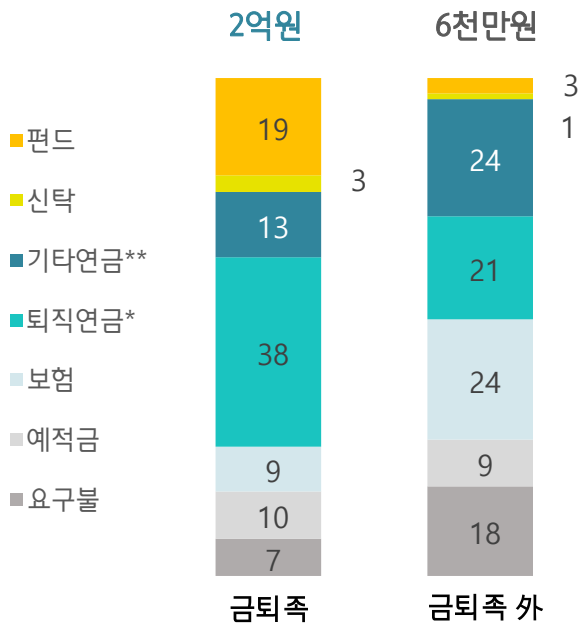
- **40대 평균 소득자 금퇴족의 특징은 ① 금융자산 중 퇴직연금이 38%나 차지하고 ② 펀드에도 19%를 할애한 것임**
  - 금퇴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금퇴족 外') 경우 퇴직연금은 21% 일반 펀드는 3%에 불과

- **이들은 펀드투자를 통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중 주식에 21%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은 일반펀드와 더불어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제도(DC형·IRP·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함

생활수준 및 노후 필요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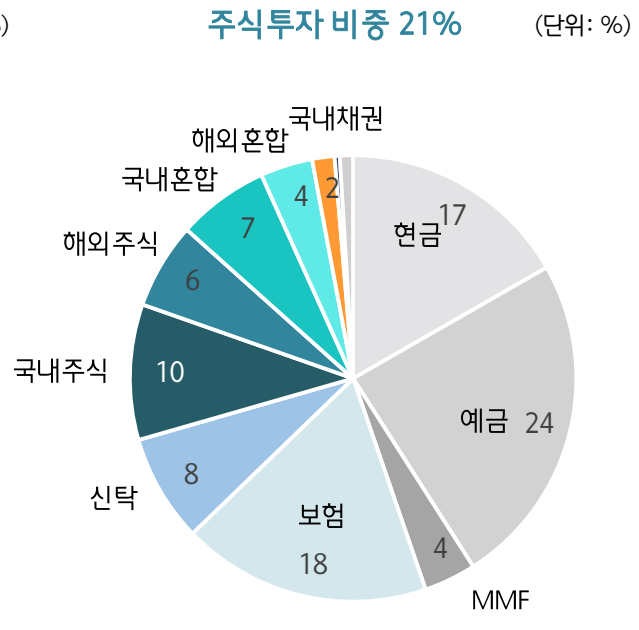
월소득	380만원
현재 생활수준 (소비지출)	292만원
국민연금 예상액	134만원
필요 생활비	158만원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구성비



* 퇴직연금: DB형 또는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된 연금제도를 말함
** 기타연금: 연금저축 보험·신탁·펀드와 IRP를 말함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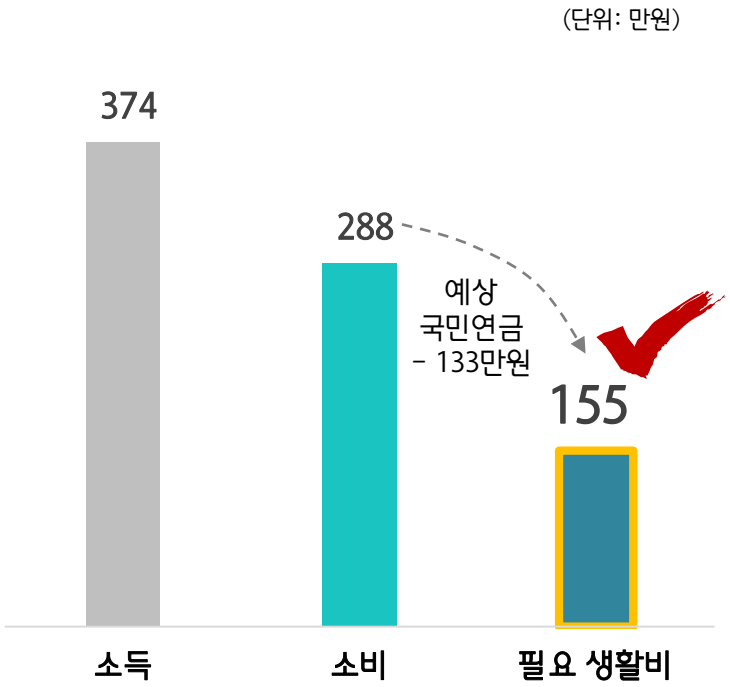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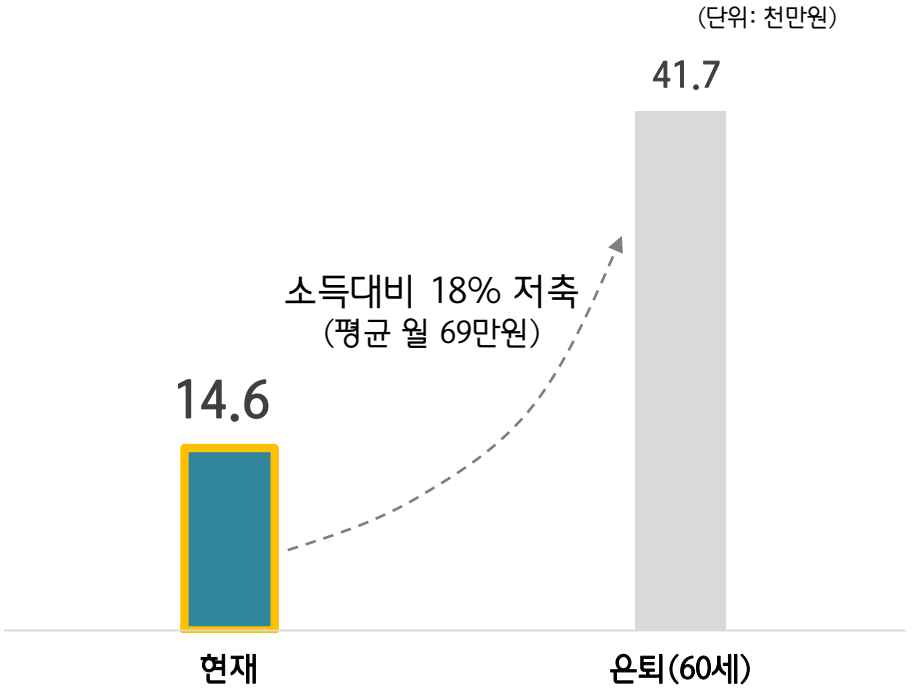
1. 평균 소득자_1) 40~44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300~500만원인 40~44세 금퇴족」**은 노후에도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55만원이 추가로 필요함**
  - 평균소득은 월 374만원, 예상 소비지출은 288만원이며,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133만원
- **이들 금퇴족은 평균적으로 현재 1억 5천만원을 보유, 앞으로 소득대비 18%**(69만원)**를 적립하면 필요자금 4억 2천만원**
  (현재 기준 실질가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
  - 저축에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증가분도 포함되며, 매년 임금상승률(연 3.5%)에 따라 늘림

현재 소득과 소비 및 필요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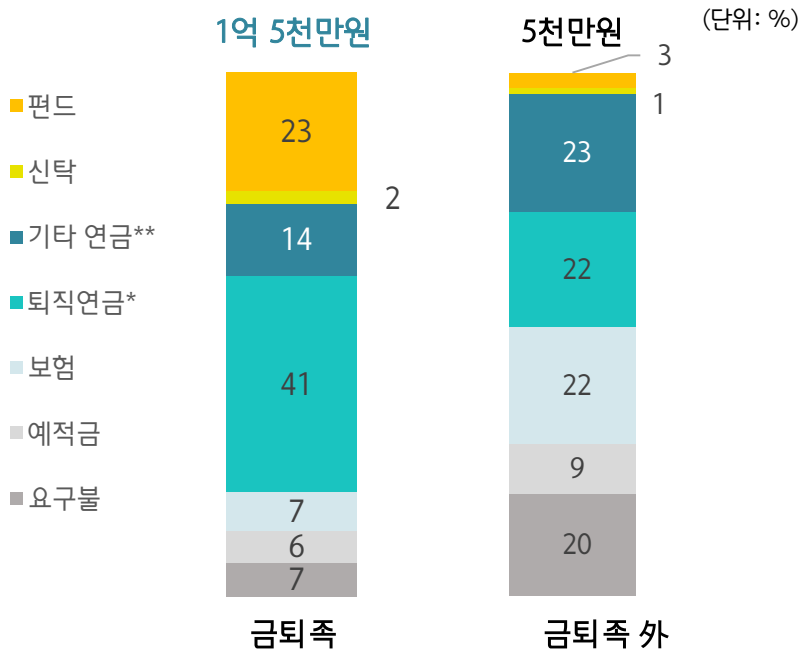
현재 금융자산 및 미래 예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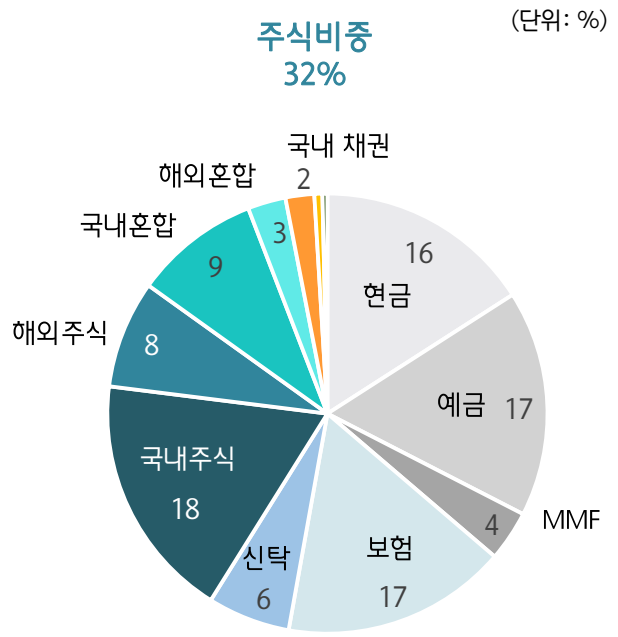
1. 평균 소득자_1) 40~44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 **금융자산 1억 5천만원 중 퇴직연금이 가장 많으며**(41%), **펀드**(23%), **IRP·연금저축 등의 기타연금**(14%) **그 다음을 차지함**
  - 퇴직연금(DB형·DC형)을 제외하면 개인이 직접 가입·불입하여 모은 금융자산은 평균 약 9천만원
  - 금퇴족 이외 집단의 경우 평균 금융자산이 5천만원이며, 금퇴족에 비해 퇴직연금과 펀드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 중 41%는 펀드로 운용하며, 약 32%는 국내외 주식이 차지**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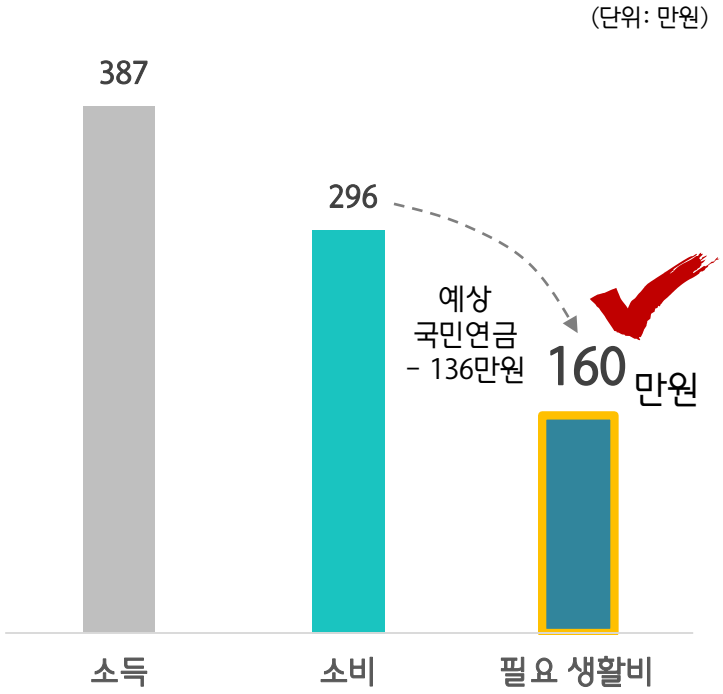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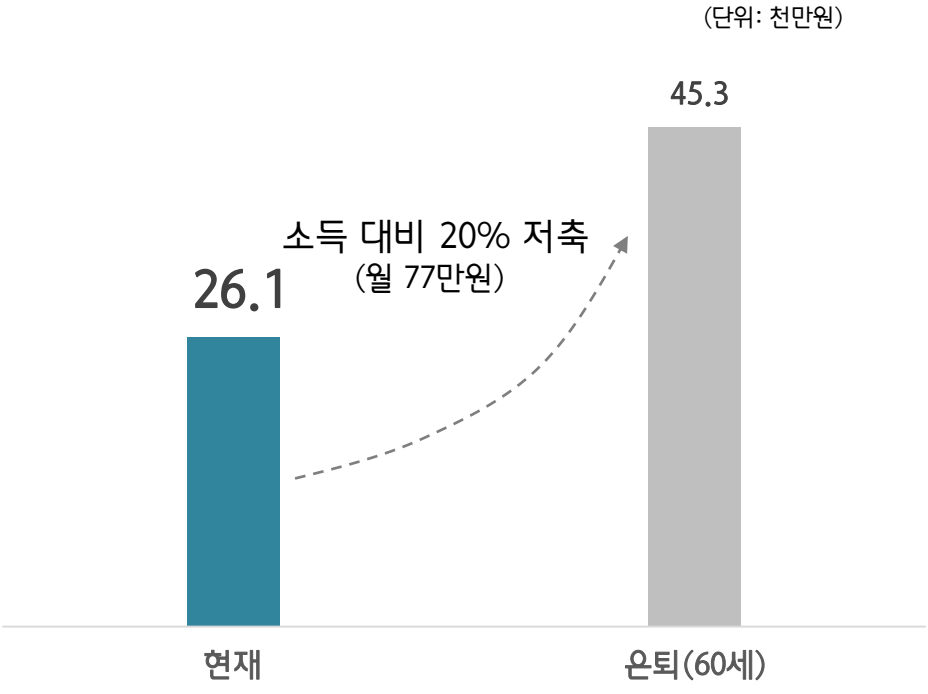
1. 평균 소득자_2) 45~49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300~500만원인 45~49세 금퇴족」이 노후에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60만원 현금흐름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
  - 평균소득은 월 387만원, 소비지출은 296만원, 현재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월136 만원임
- 이들은 현재 평균 금융자산 2억 6천만원 가졌으며, 앞으로 소득 대비 20%(77만원)를 적립하면 필요자금 4억 5천만원(현재 기준 실질가치)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
  - 저축에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증가분도 포함되며, 매년 임금상승률(연 3.5%)에 따라 늘림

현재 소득과 소비 및 필요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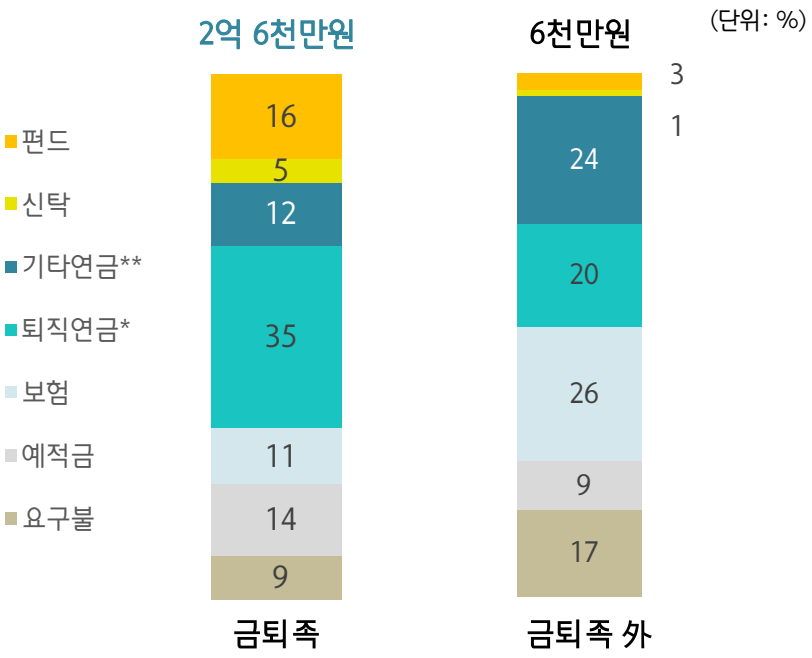
현재 금융자산 및 미래 예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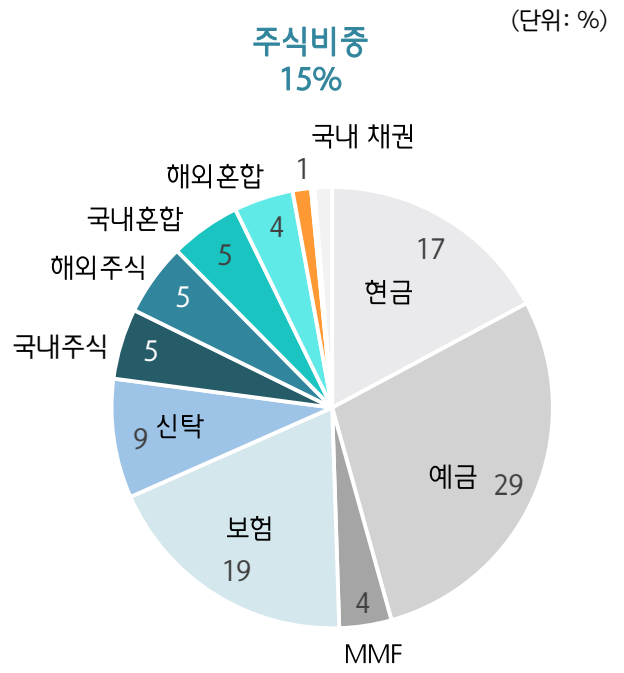
1. 평균 소득자_2) 45~49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 **금융자산 2억 6천만원 중 DB형 또는 DC형이 가장 크며**(35%), **펀드**(16%), **IRP·연금저축 등의 기타연금**(12%)**이 그 다음을 차지**
  - 퇴직연금(DB·DC형)을 제외하면 개인이 직접 가입·불입하여 모은 금융자산은 평균 1억8천만원임
  - 금퇴족 이외 집단은 평균 금융자산이 6천만원으로, 금퇴족에 비해 퇴직연금과 펀드의 비중이 작은 대신 요구불과 보험의 비중이 큼
- **금융자산 중 26%는 펀드로 운용하며, 약 15%는 국내외 주식이 차지**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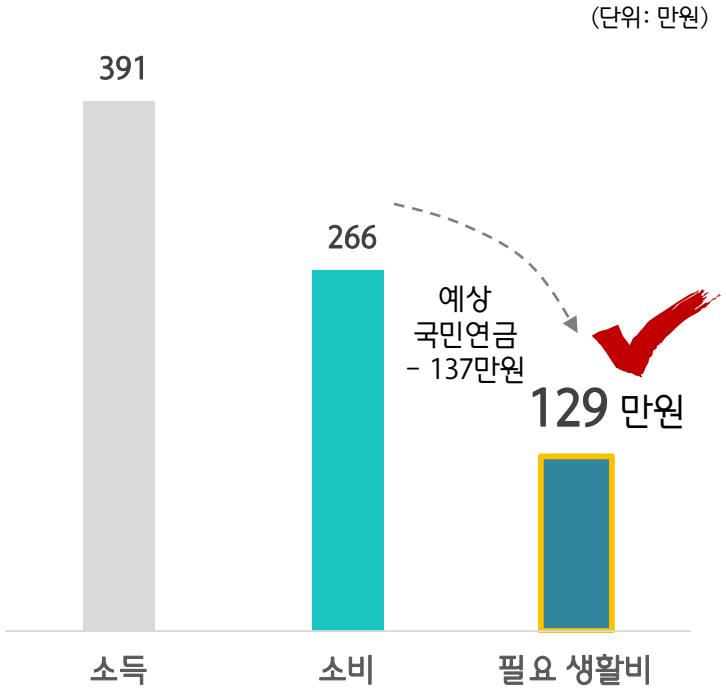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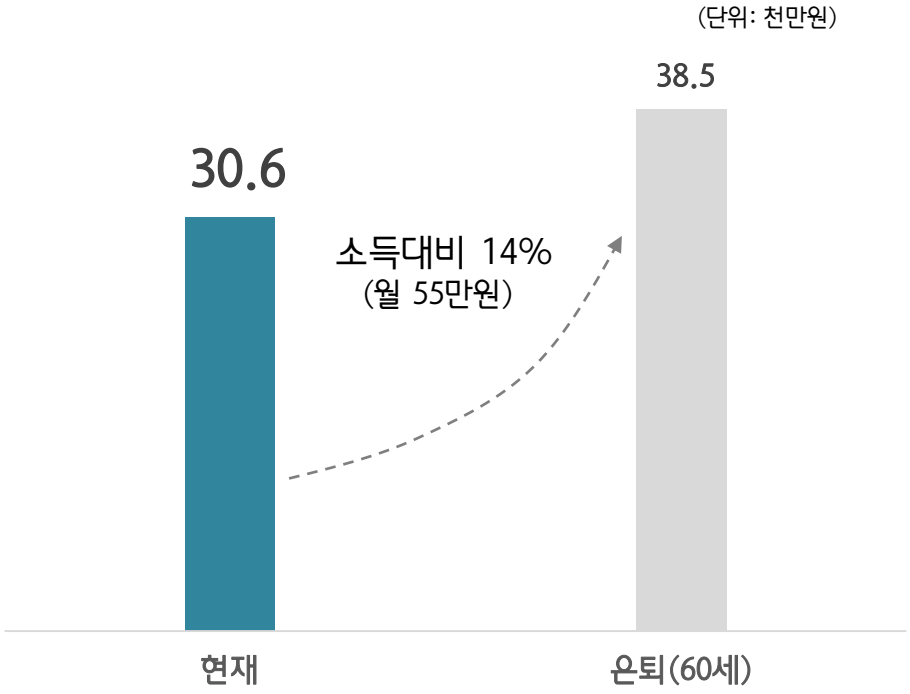
1. 평균 소득자_3) 50~55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300~500만원인 50~55세 금퇴족」은 노후에 소비지출 월 266만원을 유지하려면 현금흐름 월 129만원을 추가 마련해야 함
  - 평균소득은 월 391만원, 소비지출은 266만원, 현재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월137 만원임
- 이들은 평균적으로 3억1천만원을 가진 것으로 집계 됐으며, 향후 소득대비 14%(55만원)를 저축할 때 필요자금 3억 9천만원(현재 기준 실질가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
  - 저축에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증가분도 포함되며, 매년 임금상승률(연 3.5%)에 따라 늘릴 것

현재 소득과 소비 및 필요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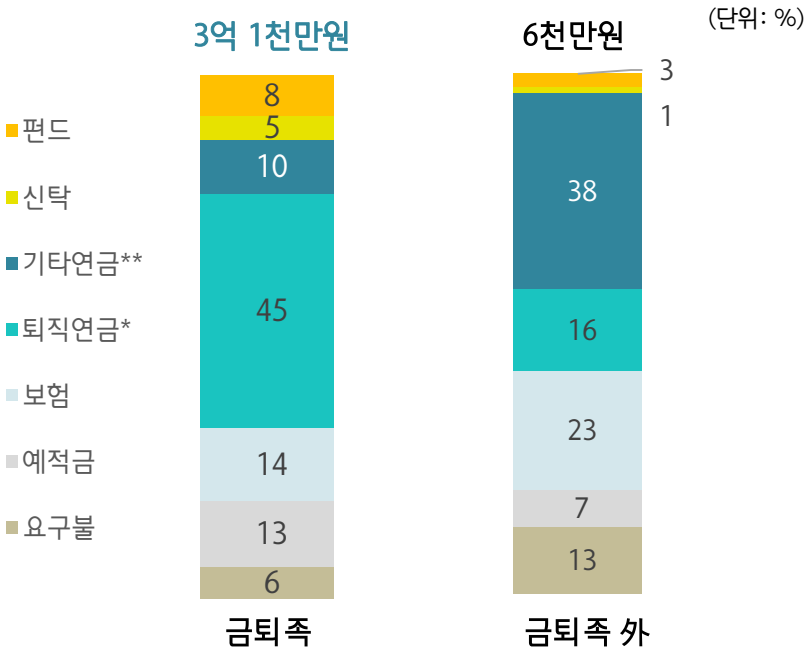
현재 금융자산 및 미래 예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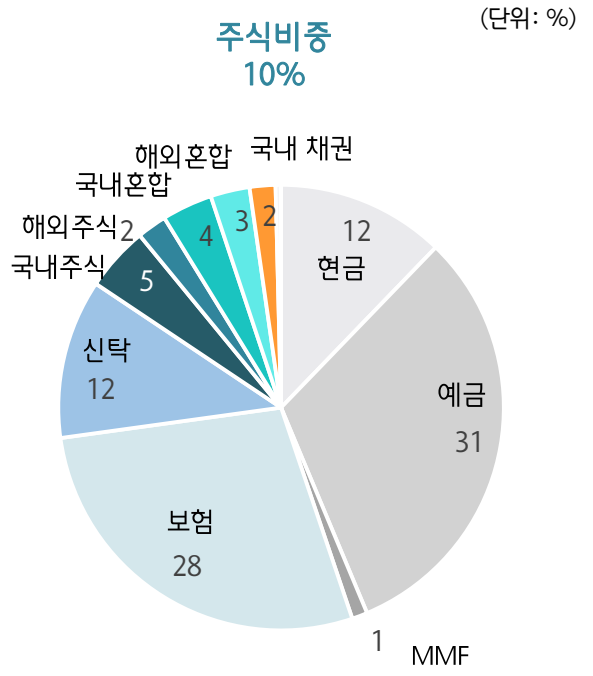
1. 평균 소득자_3) 50~55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 **50~55세 금퇴족의 경우 3억1천만원 중 퇴직연금이 절반 가까이**(45%) **차지하며, 그 다음이 보험**(14%)**, 예적금**(13%)**이고 펀드는 8%를 차지하는데 그침**
  - 퇴직연금(DB·DC형)을 제외하면 개인이 스스로 저축하여 모은 금융자산은 평균 약 1억 8천만원으로 집계
  - 금퇴족 이외 집단의 평균 금융자산은 6천만원인데, 경제활동 기간이 긴 만큼 IRP·연금저축 등 기타연금**이 가장 많음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DB형 제외) **중 16%가 펀드이며, 주식투자비중은 10% 추정**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2. 중상위 소득자(월 500~8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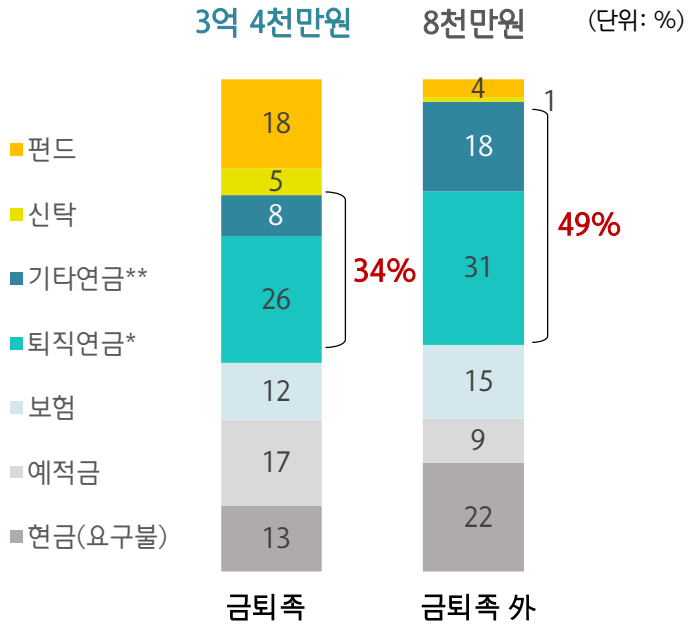
2. 중상위 소득자(월 500~800만원)_40대 요약

- **40대 중상위 소득자 중 금퇴족은 평균 3억 4천만원을 보유하며, 이중 퇴직연금과 IRP, 연금저축 등의 연금제도가 3분의 1(34%)을 차지**
  - 금퇴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제도의 비중이 49%에 이르나 금액 규모로는 4천만원 정도로 금퇴족(1억 2천만원)에 훨씬 미달
- **이들은 펀드투자를 통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에 15%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은 일반펀드와 더불어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제도(DC형·IRP·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함

생활수준 및 노후 필요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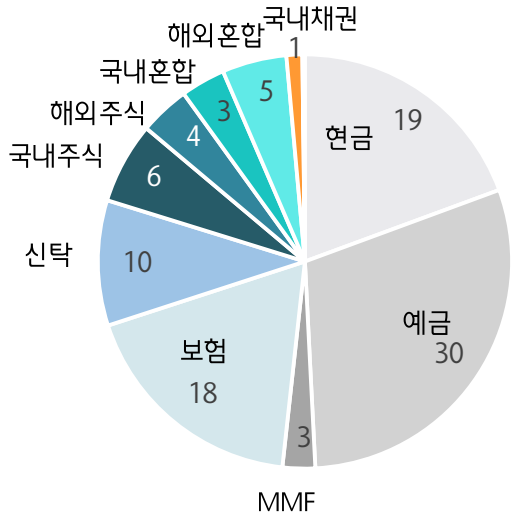
월소득	649만원
현재 생활수준 (소비지출)	415만원
국민연금 예상액	164만원
필요 생활비	251만원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구성비



* 퇴직연금: DB형 또는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된 연금제도를 말함
** 기타연금: 연금저축 보험·신탁·펀드와 IRP를 말함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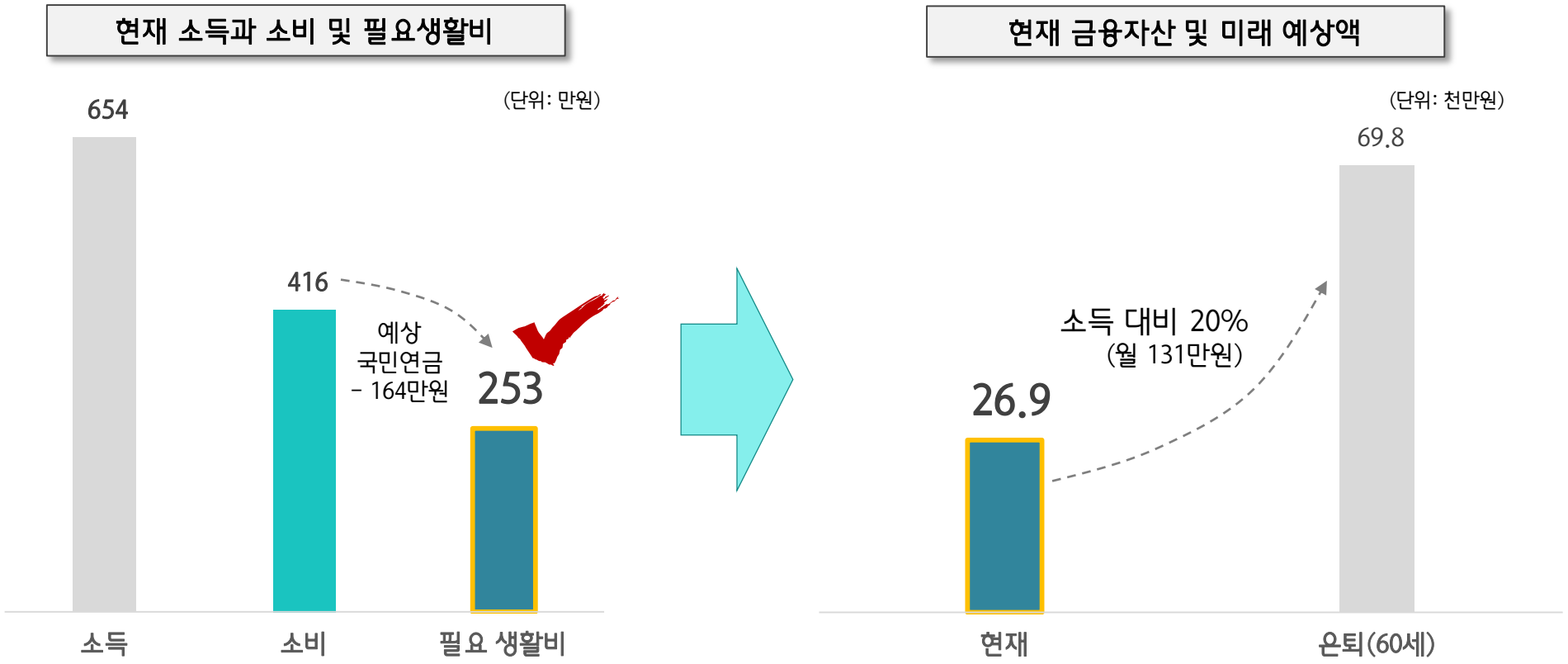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2. 중상위 소득자_1) 40~44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500~800만원인 40~44세 금퇴족」은 **소비지출 월 416만원 가운데 월 253만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함**
  - 소득은 평균 월 654만원, 이때 예상 소비지출은 416만원이며, 현재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16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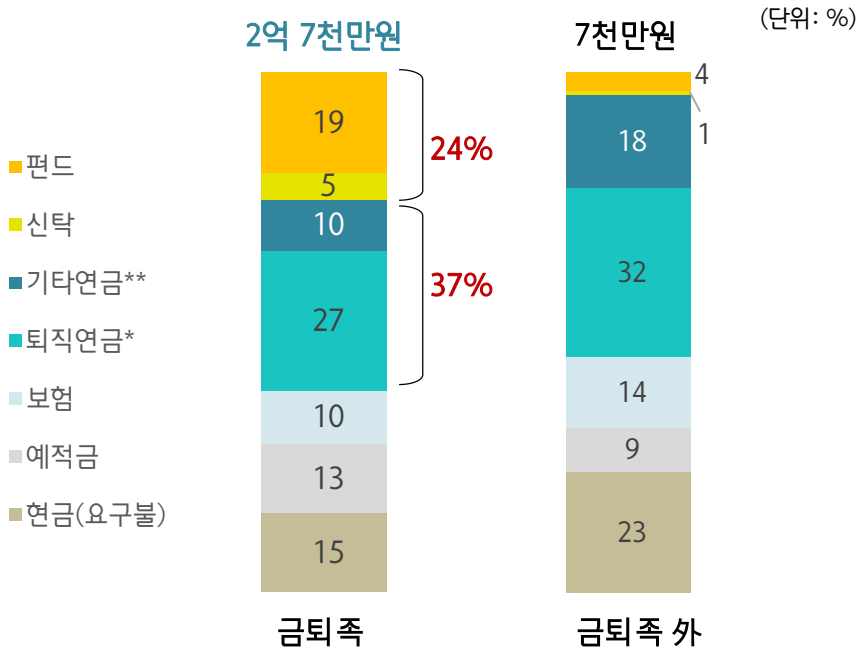
- **금퇴족은 평균 2억 7천만원을 가지며, 매월 소득대비 20%**(131만원)**를 저축하면 60세 필요자금 7억원**(현재 기준 실질가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저축에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증가분도 포함되며, 매년 임금상승률(연 3.5%)에 따라 늘릴 것



2. 중상위 소득자_1) 40~44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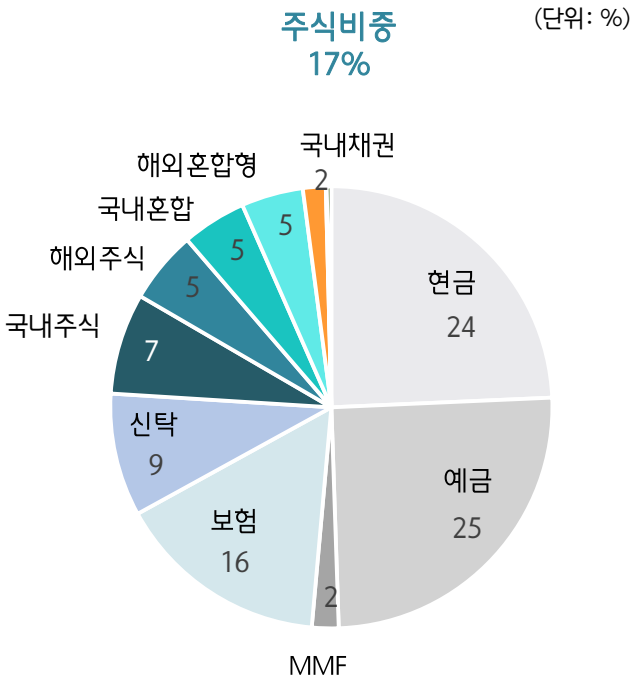
- **2억 7천만원 금융자산 가운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의 연금자산이 37%, 펀드와 신탁이 24%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예적금(13%)과 보험(10%)의 순**
  - 퇴직연금(DB·DC형)을 제외하면 개인이 직접 적립한 금융자산은 평균 약 2억원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DB형 제외) 중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17% 정도로 집계**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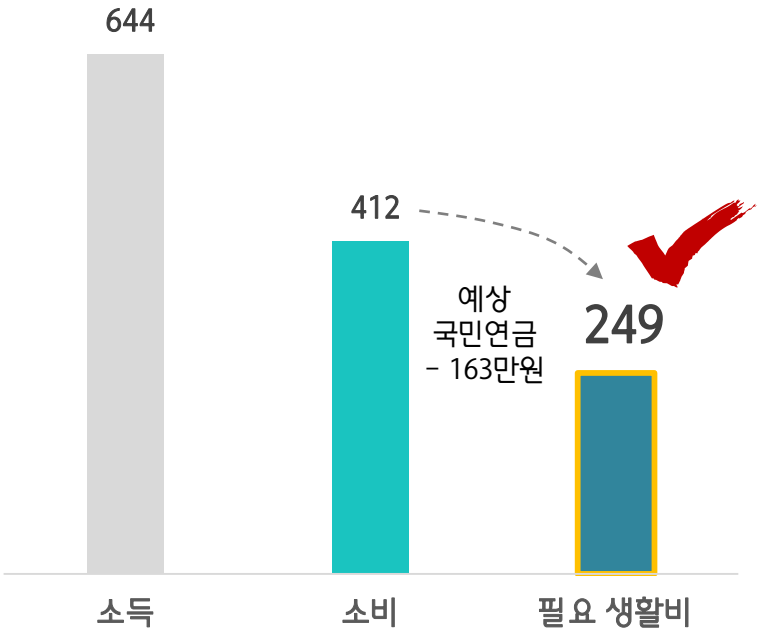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2. 중상위 소득자_2) 45~49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500~800만원인 45~49세 금퇴족」은 노후 소비지출 412만원 가운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월 249만원 마련 필요
  - 소득은 평균 월 644만원, 이때 예상 소비지출은 412만원이며, 현재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163만원
- 금퇴족은 평균적으로 평균 4억 3천만원을 가지며, 매월 소득대비 19%(125만원)를 저축하면 60세 필요자금 7억 1천만원(현재 기준 실질가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저축에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증가분도 포함되며, 매년 임금상승률(연 3.5%)에 따라 늘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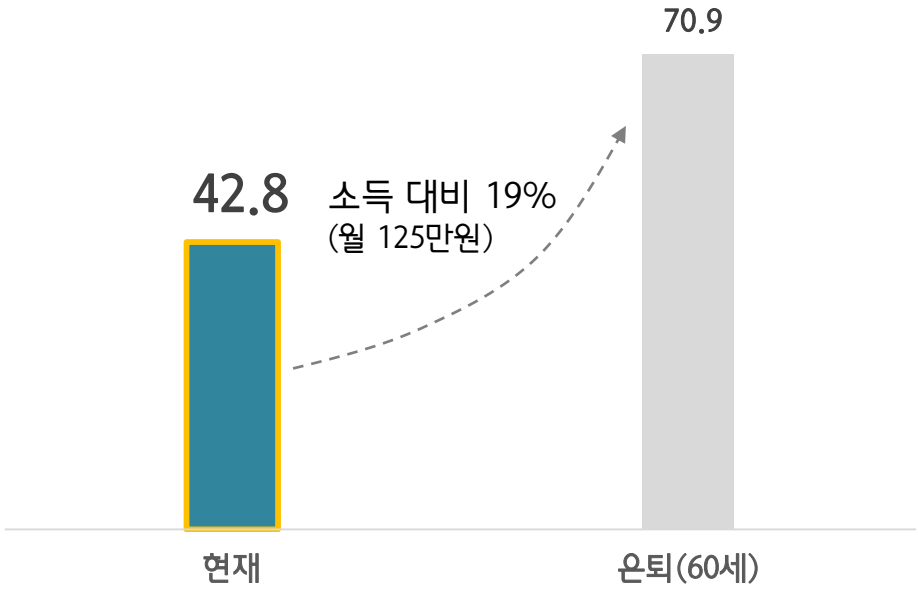
현재 소득과 소비 및 필요생활비

(단위: 만원)



현재 금융자산 및 미래 예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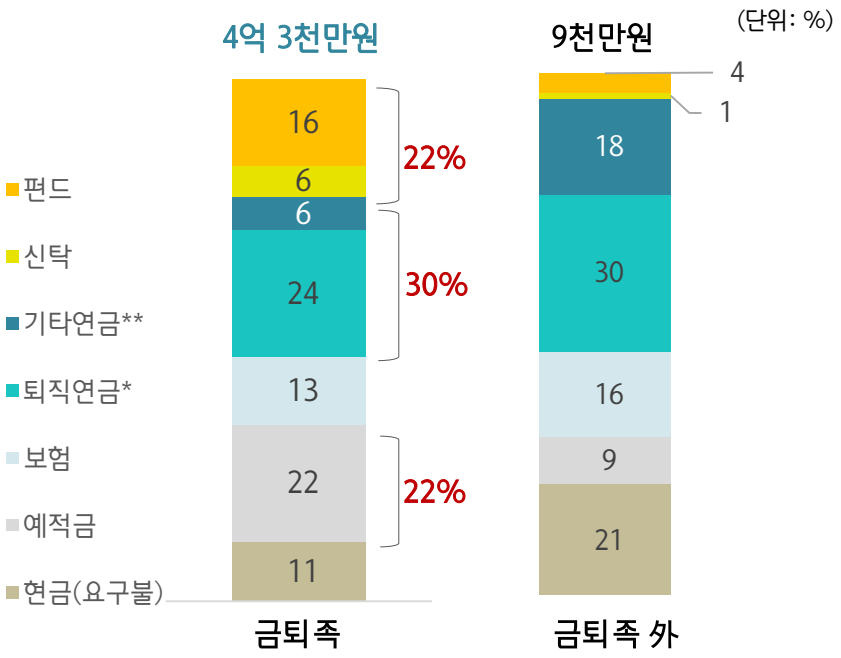
(단위: 천만원)



2. 중상위 소득자_2) 45~49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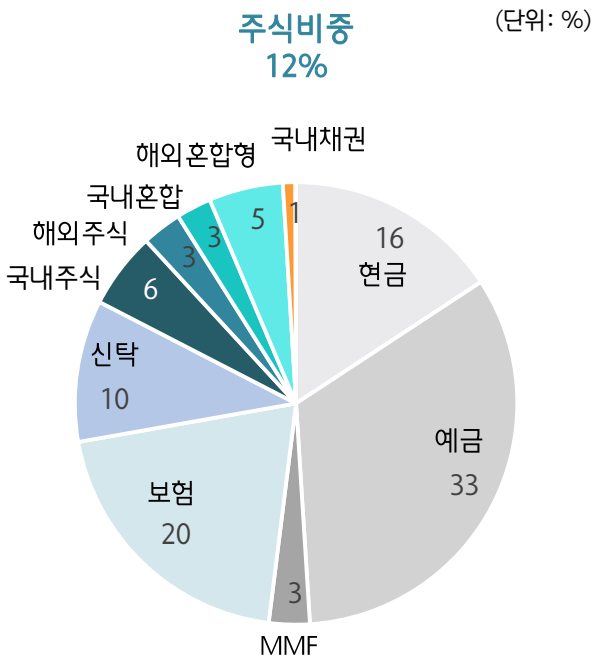
- **4억 3천만원 가운데 퇴직연금과 IRP·연금저축 등의 연금이 30%를 차지하며, 예적금이 22%, 펀드와 신탁이 22%씩을 차지**
  - 퇴직연금(DB·DC형)을 제외하면 개인이 직접 적립한 금융자산은 평균 약 3억 2천만원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DB형 제외) **중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12% 정도로 집계**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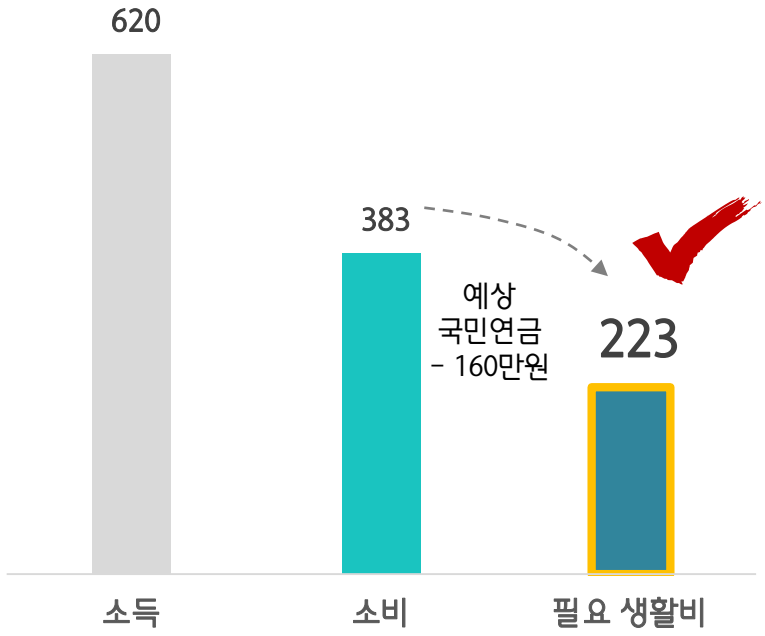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2. 중상위 소득자_3) 50~55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500~800만원인 50~55세 금퇴족」은 **소비지출 383만원 가운데 월 223만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 소득은 평균 월 620만원, 이때 예상 소비지출은 383만원이며, 현재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160만원
- **금퇴족은 평균 5억 1천만원을 가지며, 매월 소득대비 15%(92만원)를 저축하면 60세 필요자금 6억 5천만원 (현재 기준 실질가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저축에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증가분도 포함되며, 매년 임금상승률(연 3.5%)에 따라 늘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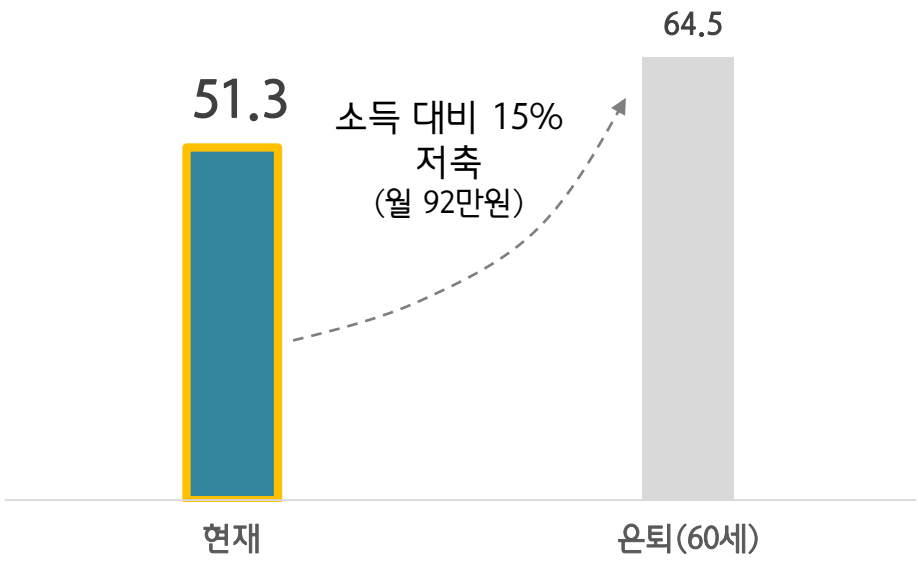
현재 소득과 소비 및 필요생활비

(단위: 만원)



현재 금융자산 및 미래 예상액

(단위: 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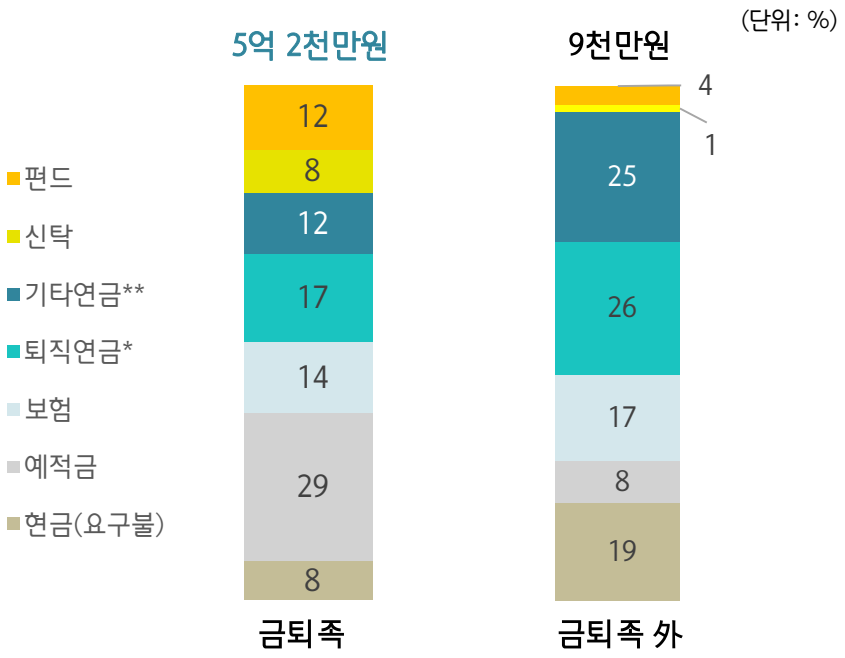


2. 중상위 소득자_3) 50~55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 금퇴족의 5억 2천만원 가운데 예적금이 가장 많은 비중(29%)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퇴직연금(17%), IRP 및 연금저축(12%)과 펀드(12%)로 나타남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DB형 제외) 가운데 16%는 펀드로 운용하며, 약 9%는 국내외 주식에 할애됨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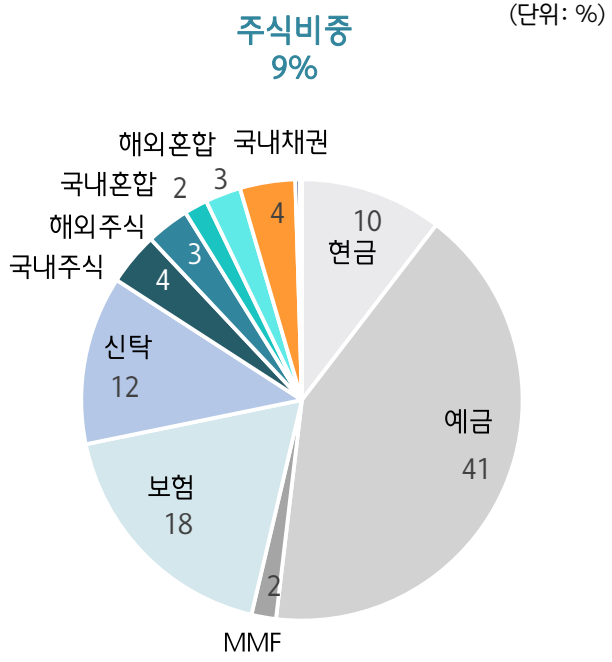
(단위: %)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단위: %)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3. 상위 소득자(월 80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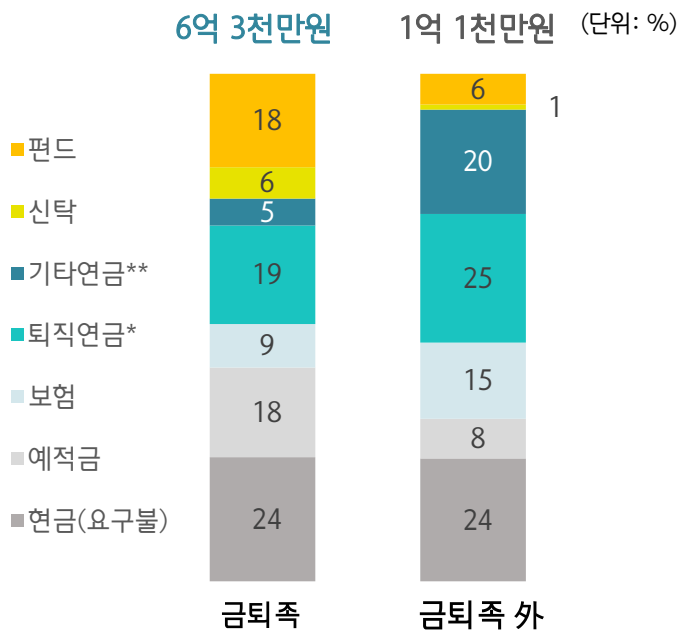
3. 상위 소득자(월 800만원 이상)_40대 요약

- **상위 소득자 중 40대**(40~49세) **금퇴족은 평균 6억 3천만원을 보유하며, '금퇴족 外' 집단보다 5억 2천만원 더 많음**
  - 금퇴족의 금융자산 중 24%는 현금(요구불)으로 가장 많고, 그 외 퇴직연금(19%), 펀드(18%), 예적금(18%)의 순임
- **이들은 펀드를 통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의 11%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
  - 개인은 일반펀드와 더불어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제도(DC형·IRP·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함

생활수준 및 노후 필요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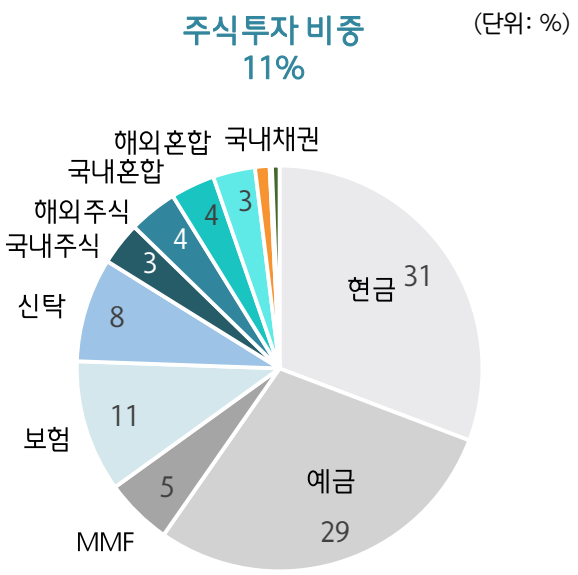
월소득	1,523만원
현재 생활수준 (소비지출)	657만원
국민연금 예상액	167만원
필요 생활비	490만원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구성비



* 퇴직연금: DB형 또는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된 연금제도를 말함
** 기타연금: 연금저축 보험·신탁·펀드와 IRP를 말함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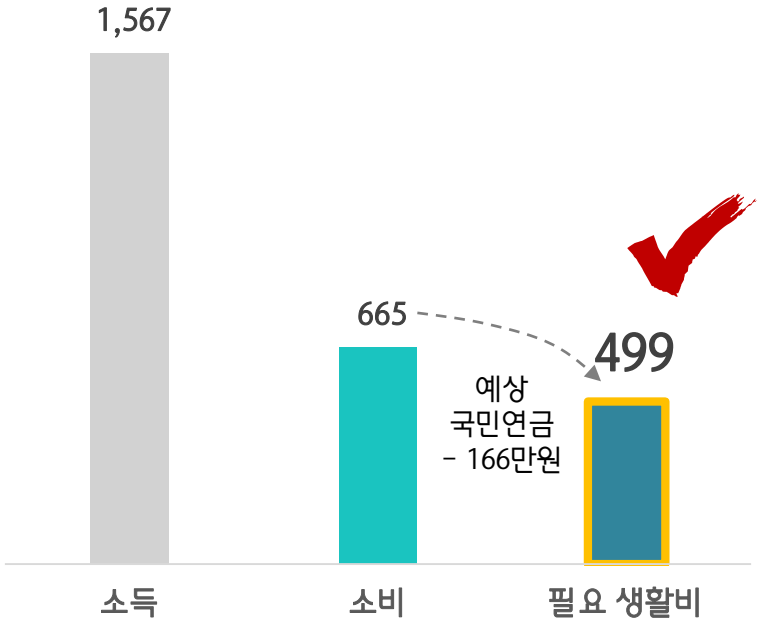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3. 상위 소득자_1) 40~44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40~44세 금퇴족」은 노후에 소비지출 665만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월 499만원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
  - 소득은 평균 월 1,567만원, 예상 소비지출은 665만원이며, 현재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166만원임
- 이들은 평균 5억 2천만원 금융자산이 있으며, 매월 소득대비 19%(298만원)씩 저축하면 60세에 13억 7천만원(현재 기준 실질가치)이 마련될 전망
  - 저축에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증가분도 포함되며, 매년 임금상승률(연 3.5%)에 따라 늘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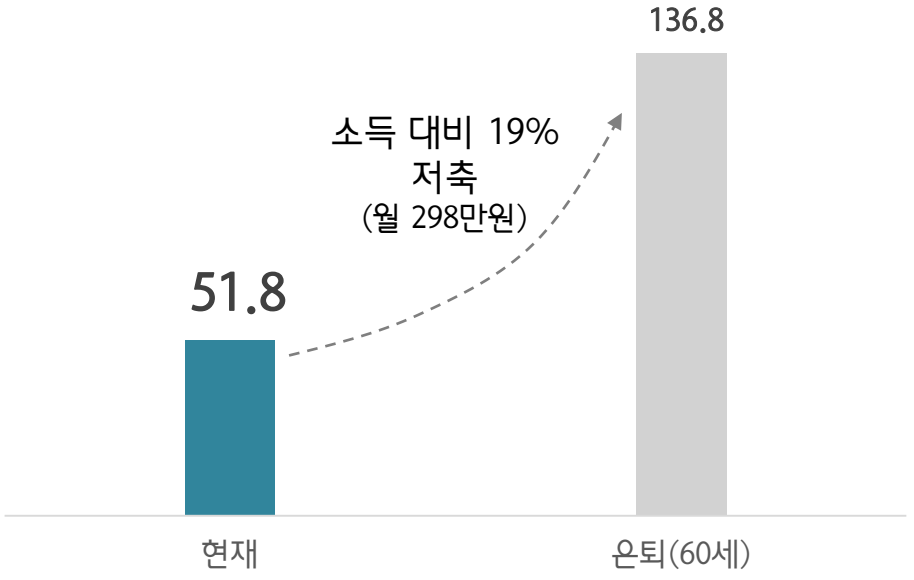
현재 소득과 소비 및 필요생활비

(단위: 만원)



현재 금융자산 및 미래 예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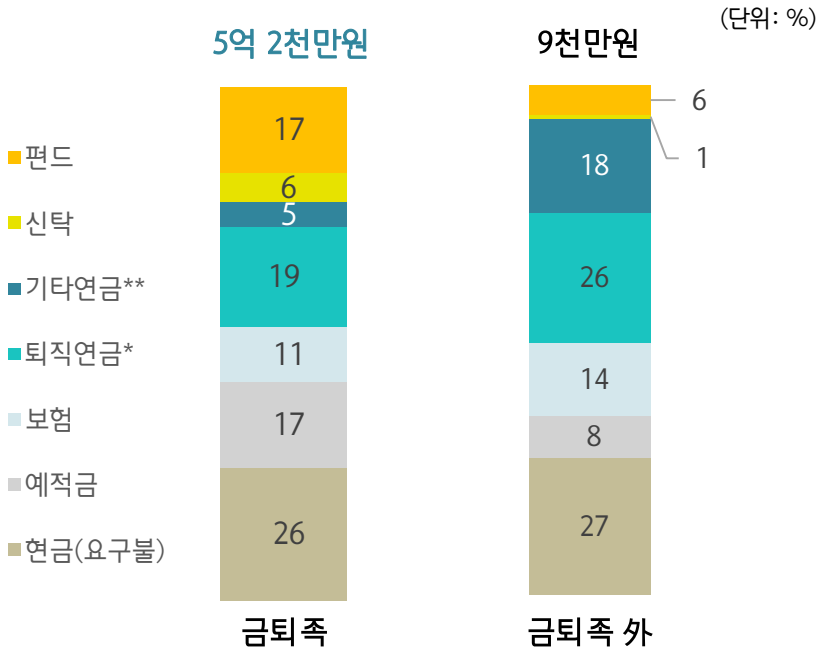
(단위: 천만원)



3. 상위 소득자_1) 40~44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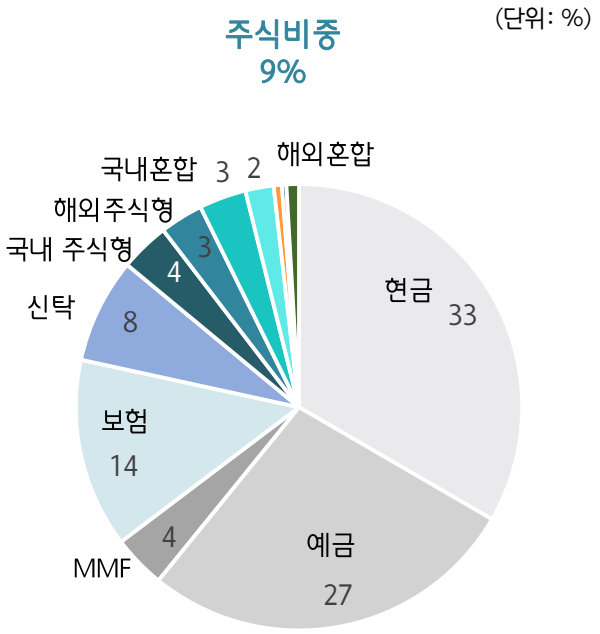
- **금융자산 5억 2천만원 가운데에서는 현금(요구불) 2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19%), **보험**(17%), **펀드**(17%)**의 순**
  - 금퇴족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평균 9천만원 있었으며, 그 중 현금(요구불)이 27%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금융자산 중 18%가 펀드로 운용하며, 약 9%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됨**
  - 개인은 일반펀드와 더불어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제도(DC형·IRP·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함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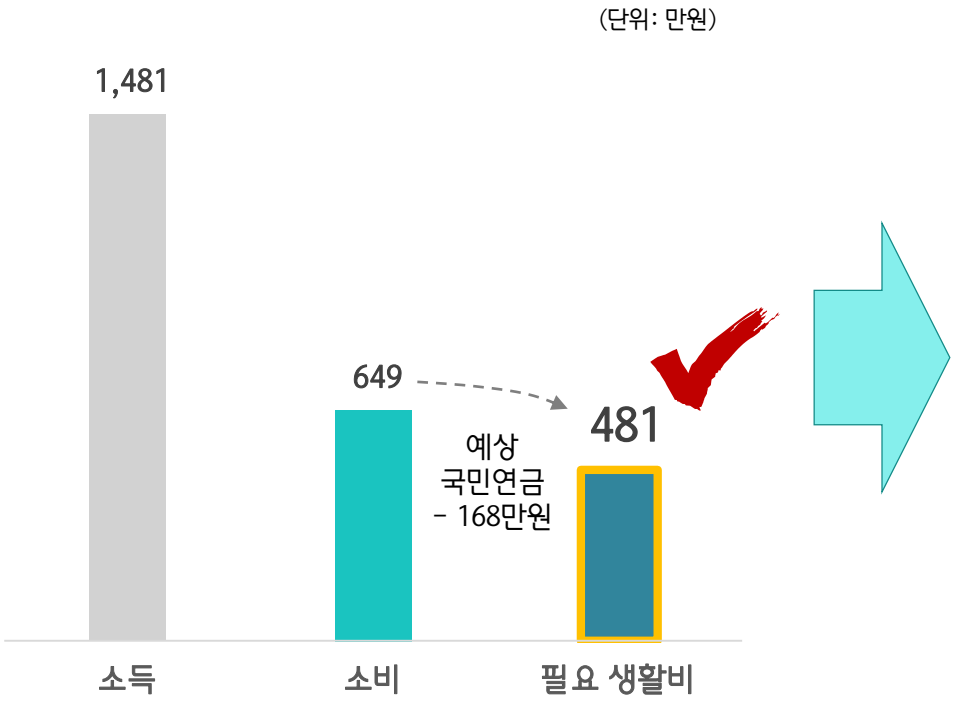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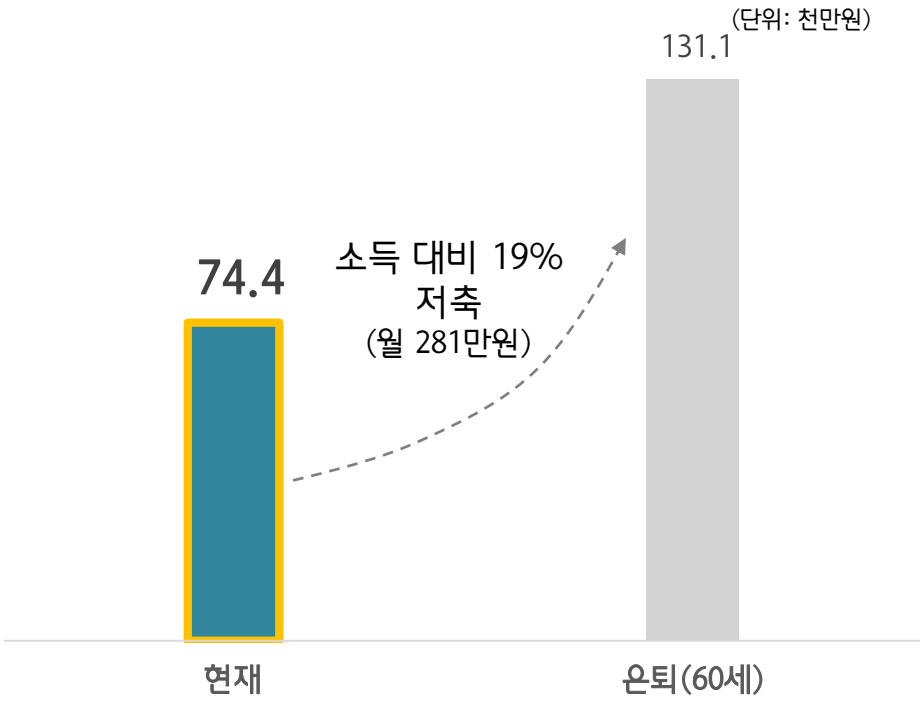
3. 상위 소득자_2) 45~49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45~49세 금퇴족」**은 소비지출 649만원을 노후에도 유지하려면 월 481만원 현금흐름을 마련할 필요**
  - 소득은 평균 월 1,481만원, 이때 예상 소비지출은 649만원이며, 현재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168만원
-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은 평균 7억 4천만원이며, 소득대비 19%**(281만원)**를 저축하면 60세 필요자금 13억 1천만원**
  (현재 기준 실질가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저축에는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증가분도 포함되며, 매년 임금상승률(연 3.5%)에 따라 늘릴 것

현재 소득과 소비 및 필요생활비



현재 금융자산 및 미래 예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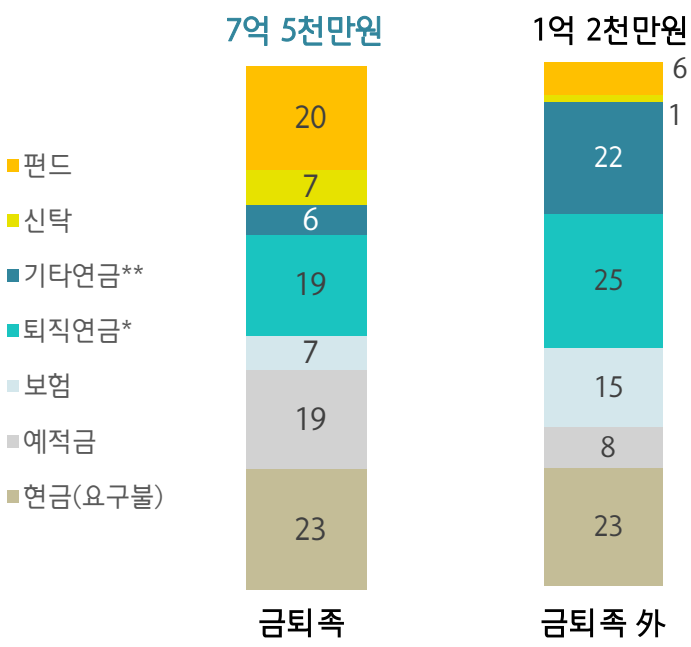


3. 상위 소득자_2) 45~49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 **금퇴족의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현금(요구불)으로 23%를 차지하며, 이어서 펀드(20%), 퇴직연금(19%)와 예적금(19%)의 순으로 집계**
  - 금퇴족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이 평균 1억 2천만원 있었으며, 이중 25%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DB형 제외) 가운데 펀드투자가 23%를 차지하며, 주식비중은 약 12%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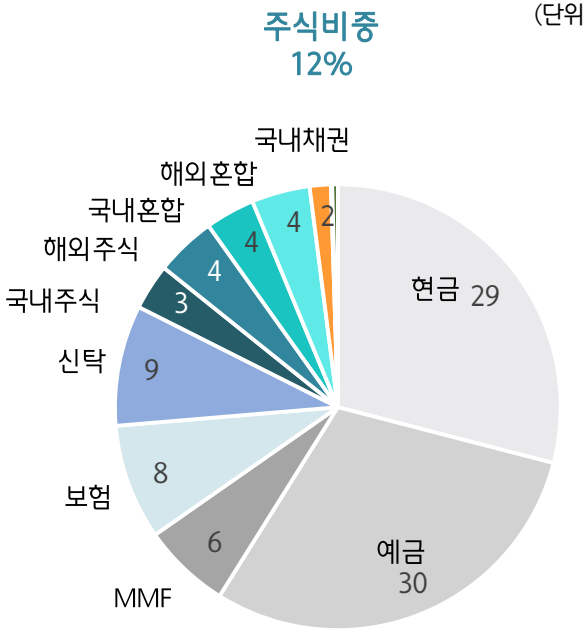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단위: %)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단위: %)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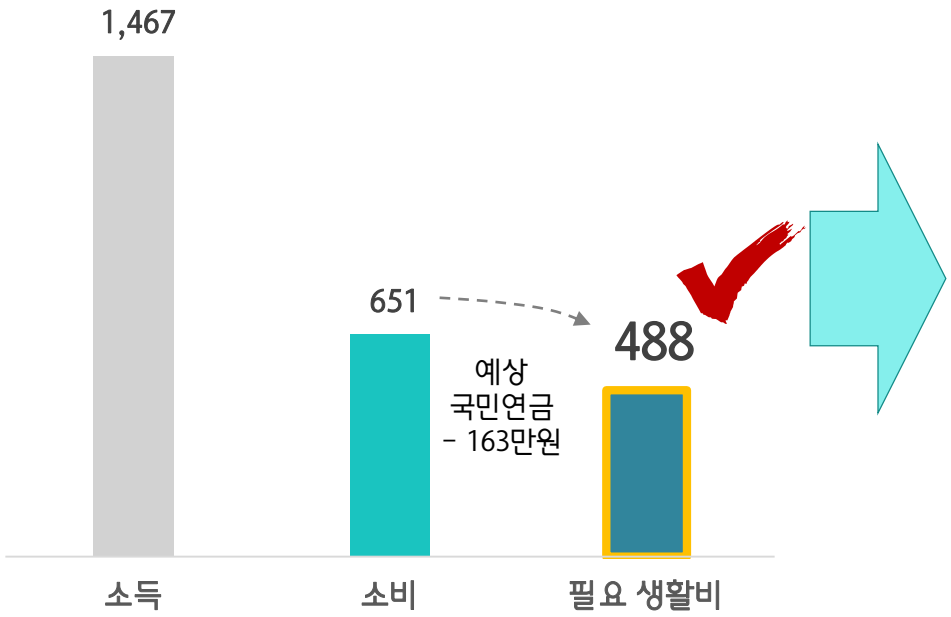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3. 상위 소득자_3) 50~55세 ① 소비지출 및 보유 금융자산

-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50~55세 금퇴족」은 소비지출 651만원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예상액을 제외한 월 488만원을 마련해야 함
  - 소득은 평균 월 1,467만원, 이때 예상 소비지출은 651만원이며, 현재 소득과 연령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예상액은 163만원임
-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은 평균 10억 6천만원이며, 매월 소득대비 15%(221만원)를 저축하면 60세 필요자금 13억 4천만원(현재 기준 실질가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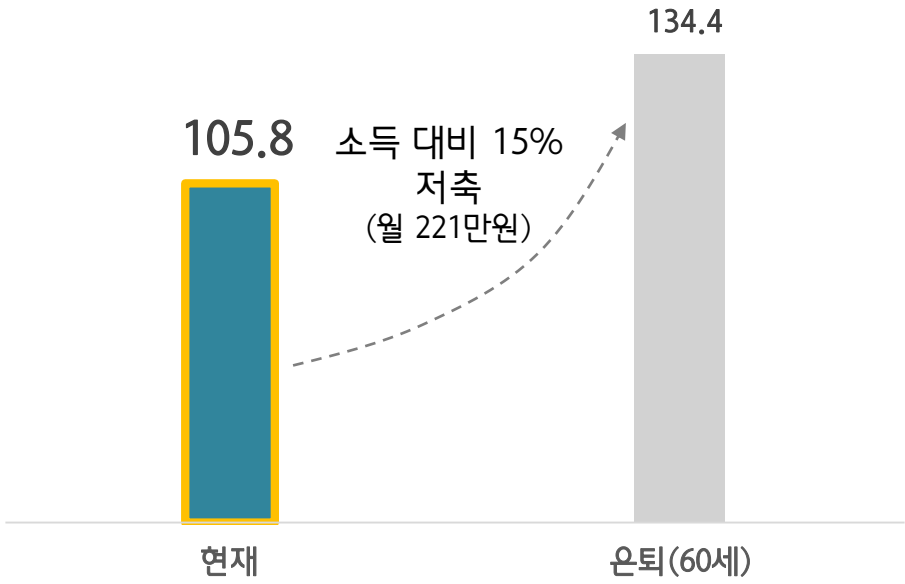
현재 소득과 소비 및 필요생활비

(단위: 만원)



현재 금융자산 및 미래 예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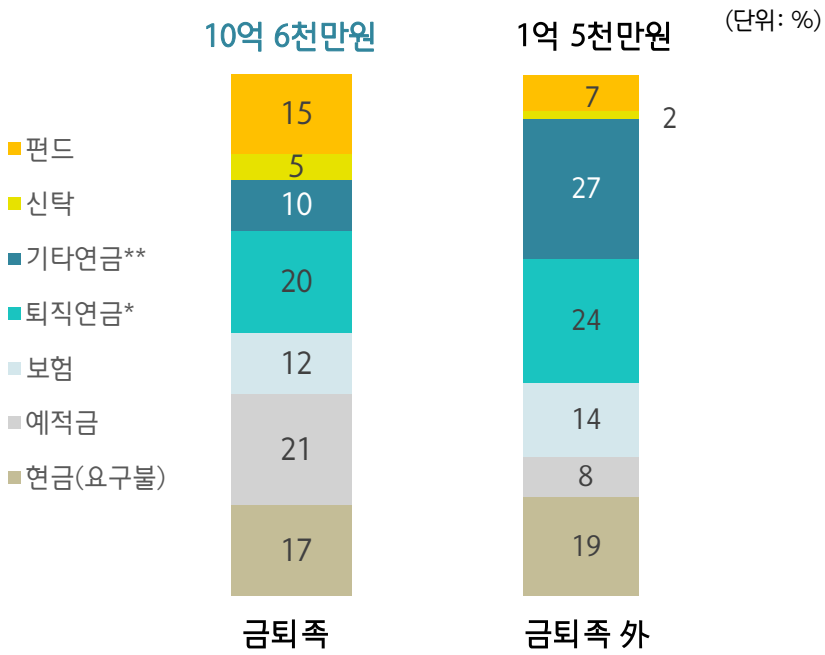
(단위: 천만원)



3. 상위 소득자_3) 50~55세 ②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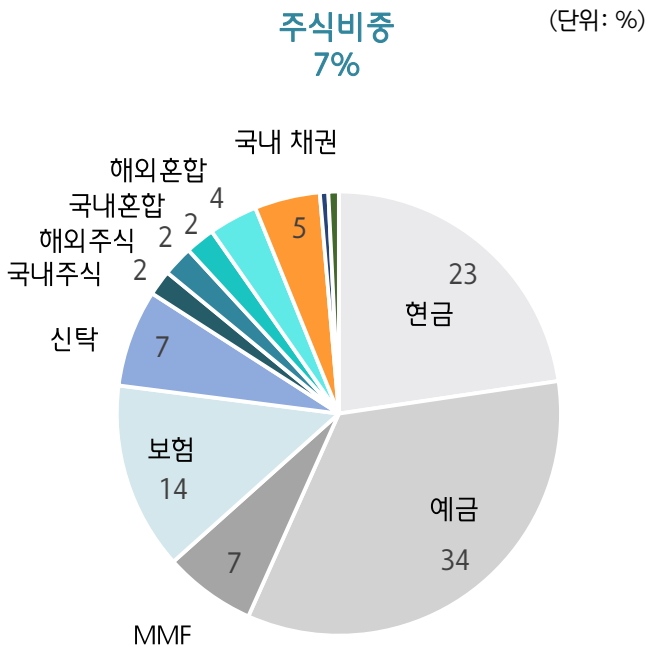
- **금퇴족 금융자산 중 가장 많은 것은 예적금으로 21%를 차지하며, 뒤이어 퇴직연금(20%), 일반 펀드(15%)와 보험(12%)의 순임**
  - 퇴직연금(DB·DC형)을 제외하면 금퇴족 개인이 직접 적립한 금융자산은 평균 약 8억 5천만원
  - 금퇴족이 아닌 경우 평균 금융자산은 1억 5천만이며, 이가운데 IRP·연금저축 등 기타 연금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DB형 제외) 가운데 펀드 등을 통한 주식투자비중은 약 7%로 집계**

평균 금융자산 규모 및 상품 비중



*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등 회사에서 가입되는 퇴직연금을 말함
** 기타 연금은 IRP,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등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평균 금융투자 비중(DB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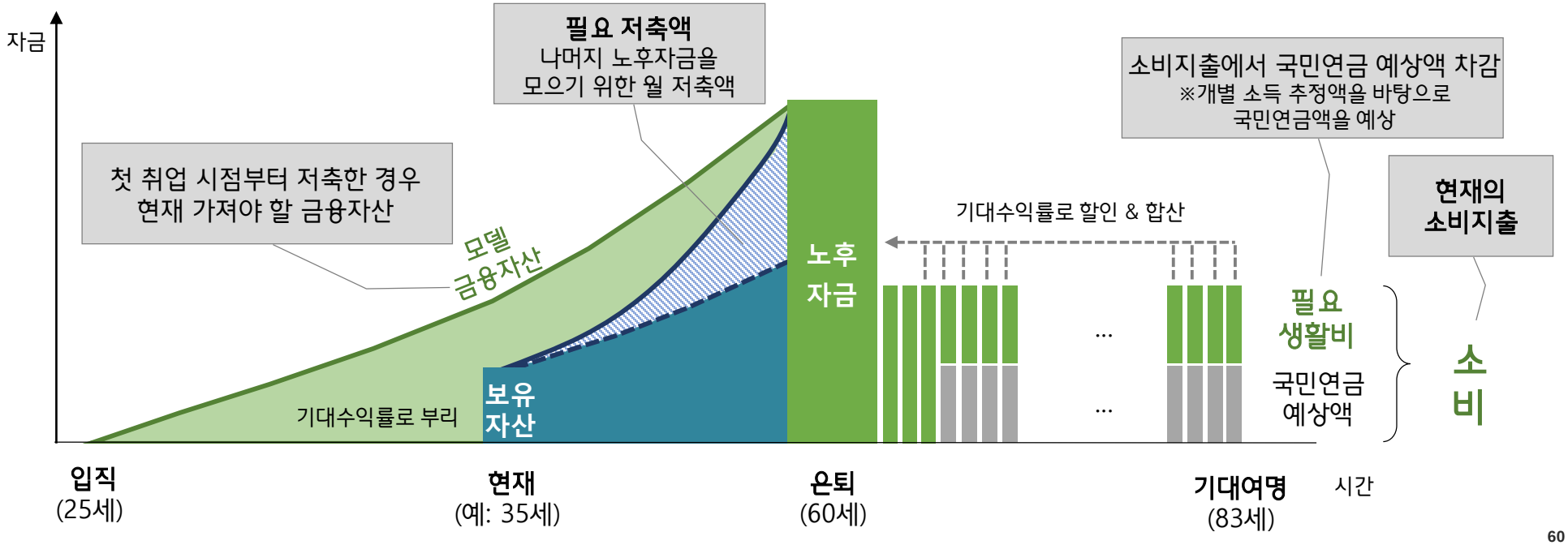


* DB형 적립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자산 기준

[Appendix] 금퇴족 분석방법 ① 노후준비 평가방법

▪ **본 보고서에서 노후준비를 평가하는 방법은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생활(소비지출)하기 위해 일 하는 동안 꾸준히 저축하는 이상적인 상황'과 현재까지 개인별로 적립한 금융자산을 비교하는 것**

- **필요생활비:** 은퇴 이후 개인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소비지출로, 노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뺀 금액
- **노후자금:** 은퇴 이후 필요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은퇴할 때까지 모여야 할 자금
- **모델 금융자산:**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 때부터 꾸준히 저축했다면 현재까지 적립된 이상적인 금융자산 규모
- **필요 저축액:** 은퇴 직전까지 나머지 노후자금을 모으기 위해 앞으로 매월 저축해야 할 돈
- **기대수익률:** 요구불(현금), 예적금, 펀드, 보험 등 현재 금융자산 구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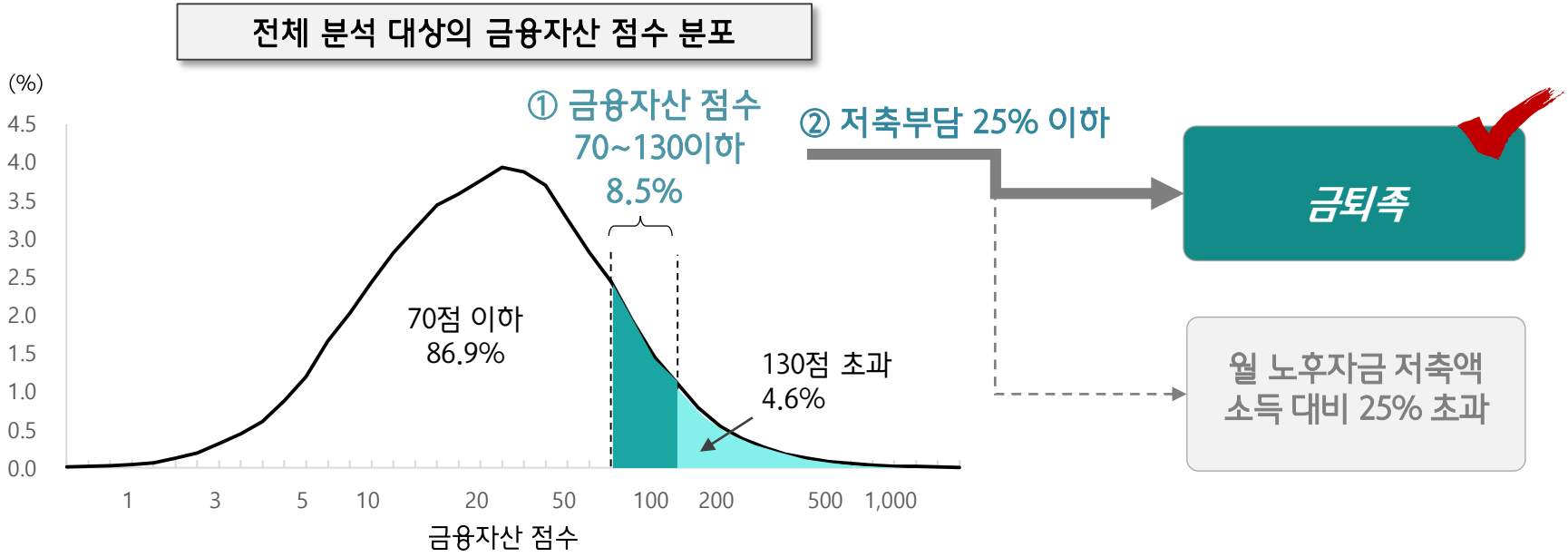
[Appendix] 금퇴족 분석방법 ② 선정 기준

- **「금퇴족」은 노후준비도를 평가한 결과 아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모범적인 범위에 포함되는 케이스임**
  - 분석 대상: *보험 ·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을 보유하며 금융자산 1천만원 이상인 30~55세 남성
- **모델의 기준은 ① 금융자산 점수 '70점~130점' 사이, ② 저축부담 '25% 이하'로 설정**

① 금융자산 점수 : 현재 금융자산이 충분한가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모델금융자산 대비 개인의 보유 금융자산의 크기이며, 모델과 실제 금융자산의 크기가 같을 때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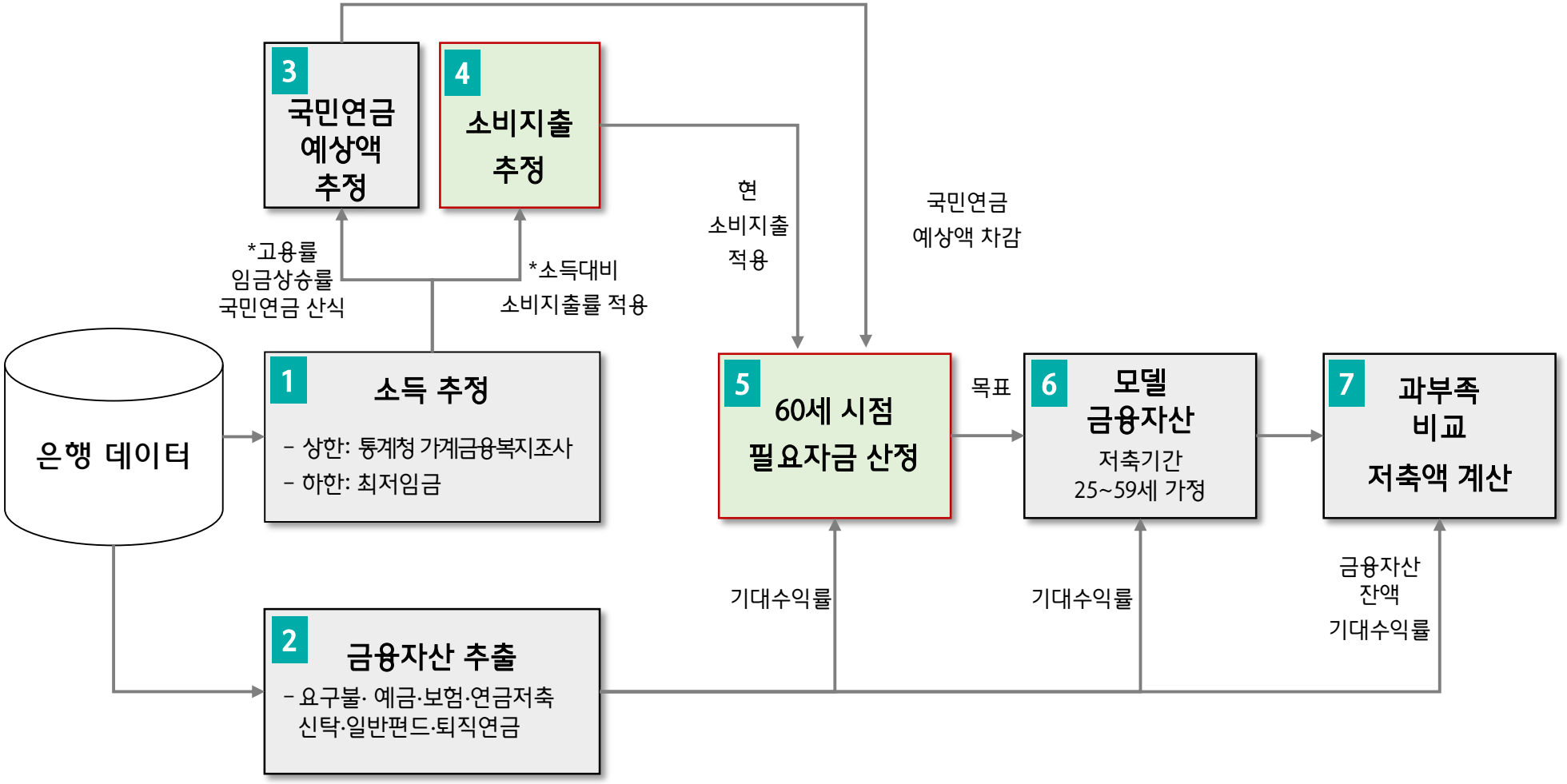
② 저축부담 점수 : 앞으로 저축해야 할 부담이 지나치게 큰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현재소득 대비 필요저축액의 크기

$$\text{금융자산 점수(점)} = \frac{\text{개인 금융자산}}{\text{모델 금융자산}} \times 100 \quad / \quad \text{저축부담 점수(\%)} = \frac{\text{필요 저축액}}{\text{현재 소득}}$$



[Appendix] 금퇴족 분석방법 ③ 빅데이터 분석 흐름

▪ 빅데이터 모형을 활용 개인의 소득수준 추정 및 보유 금융자산을 추출하여 60세 시점 필요자금, 모델 금융자산 및 과부족 등을 계산함



[참고문헌]

(문 헌)

국회예산정책처(2019),「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 전망」

통계청(2020),「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결과」

100년 행복연구센터(2020),「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BNY Mellon Wealth Management(2019), *Calendar Year 2019 10-Year Capital Market Return Assumptions*

(2020), *10-Year Capital Market Assumptions*

JP Morgan Asset Management(2019), *2020 24th Annual Edition Long-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

(2020), *2020 Long-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

(홈페이지 및 통계자료)

국민연금공단, 기본연금액 산식, A값 및 B값 추이

보험개발원, 명목임금상승률 표준율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5세 단위 성별 고용률) 시계열

2018년 기준 생명표

2016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통계

지난 발간자료

[생애금융보고서 No.1]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년 05월)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평균 12.5년 소득 크레바스에 놓인 퇴직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법 "

100년 행복 연구소는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득 크레바스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다. 이들이 당장 얼마나 지출하고,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하는지, 앞으로 노후자금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조사했다. 더불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심적인 부적응을 겪지는 않았는지, 이후 여가생활과 인간관계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 본 보고서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100년 인생이 행복으로 채워지도록’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손님의 행복은 변함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100년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하나금융그룹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 이후까지 100년의 인생 동안 마주하는 여러 자산관리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깊이 있는 진단을 전해드리면서 누구에게나 은퇴가 내 삶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라는 하나금융그룹의 지향점을 실현하겠습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구성원

조용준 센터장 / 現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100년 행복연구센터장 겸임
김상만 실장 / credinal@hanafn.com
김훈길 수석연구위원 / kim.hg@hanafn.com
이남희 연구위원 / namheelee@hanafn.com
김혜령 연구위원 / hyeryungkim@hanafn.com
경은진 연구위원 / eunjin2@hanafn.com

하나금융그룹 | 100년 행복연구센터

하나금융그룹 | 100년 행복연구센터

※본 홍보물은 2021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광고-3676호(2020.09.07)/CC브랜드200902-19